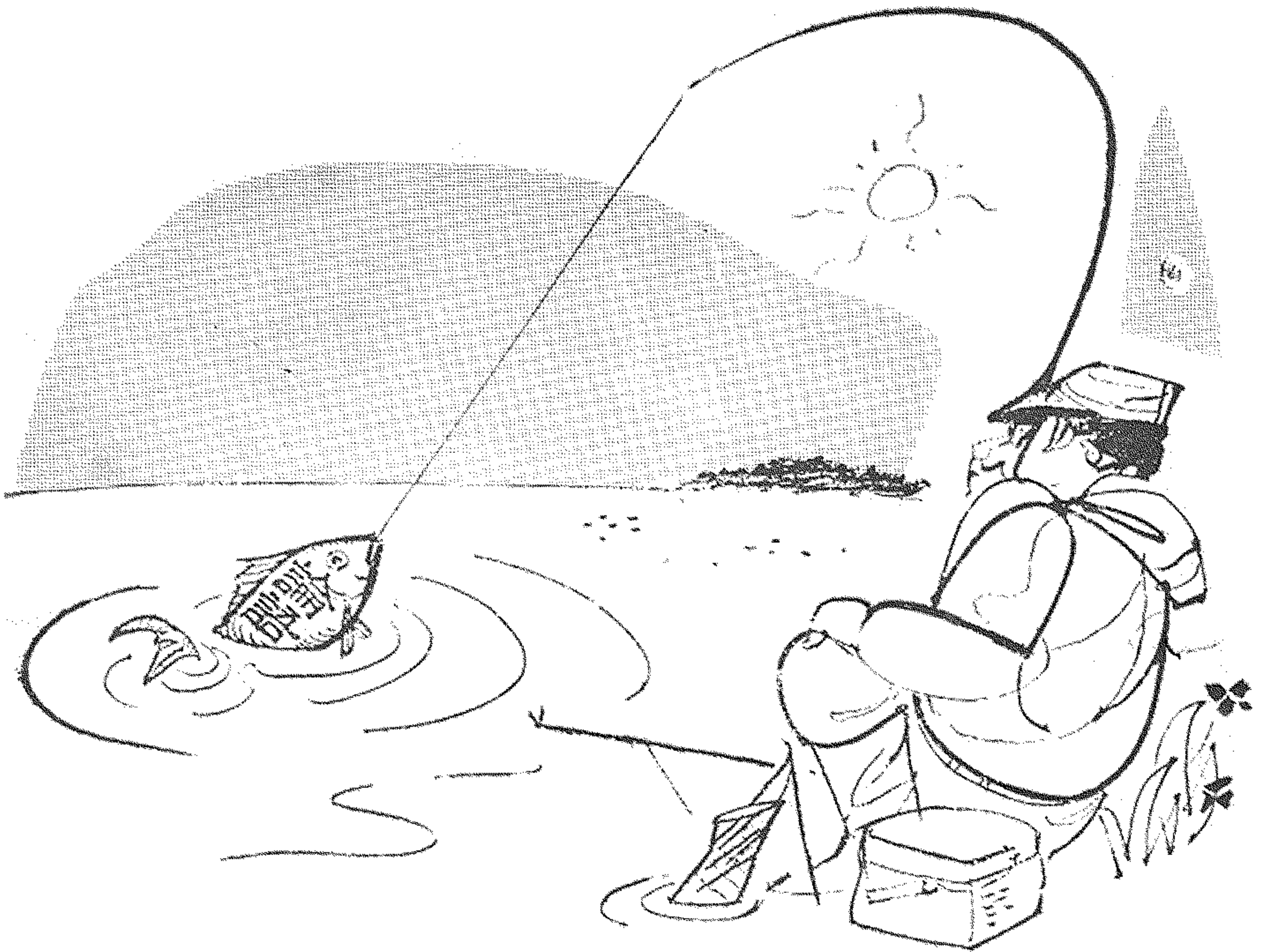


速記世界

第五號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目 次

<祝 辭>

長足の 發展을 祝함.....	國會事務總長署理 權 景 植.....	2
現代人の 必須.....	朝鮮日報副社長 劉 鳳 榮.....	3
協會運營을 맡고.....	理事長 安 仁 榮.....	5
資質向上의 問題點.....	李 龍 洙.....	7

第 8 回冬季無料講習.....		10
------------------	--	----

英語 速記講習을 마치고.....	盧 英 民.....	11
-------------------	------------	----

내가 배운 속기.....	나 은 주.....	13
---------------	------------	----

□ 언어와 대화의 어떤 이야기.....	장 숙 경.....	14
-----------------------	------------	----

<세미나>

特 集	○ 國會에서의 會議錄作成上의 問題點	金 鎮 基.....	15
	○ 速記需要處의 開發方案.....	李 康 賢.....	18
	○ 無料速記講習의 現況과 그 改善點.....	梁 源 龍.....	21

◇ 나의 速記半生記.....	金 星 漢.....	23
-----------------	------------	----

◇ 밀린 이야기들.....	金 仙 玉.....	27
----------------	------------	----

<資 料> 우리나라 國會速記制度改革을 위한 見解.....		30
---------------------------------	--	----

● 會 規		33
-------------	--	----

● 資格審查規定		35
----------------	--	----

□ 70年度 協會總會.....		3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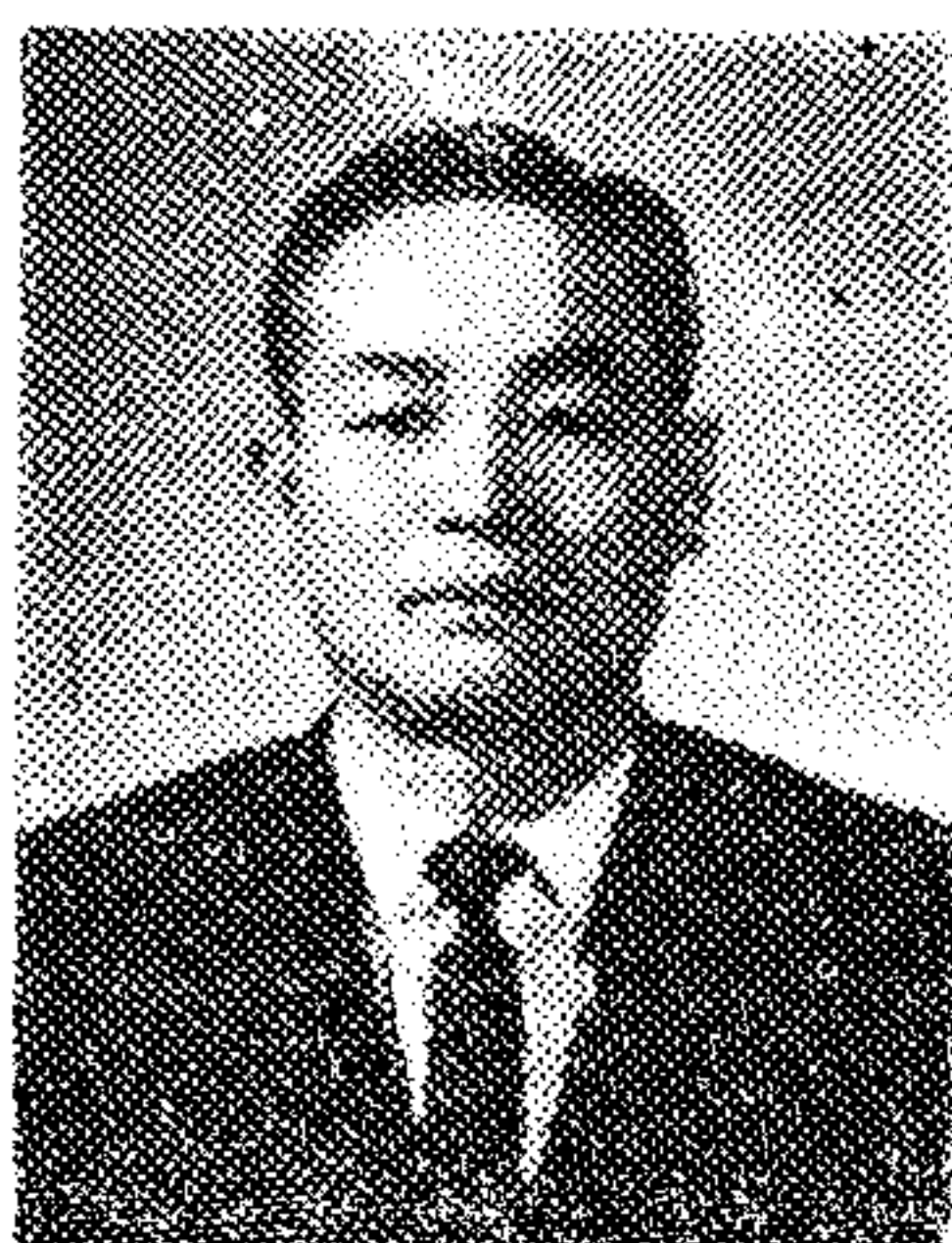
表紙 · 金鍾壽

寫眞 · 金善弼

長足の 發展을 祝함

——70年度 協會定期總會席上에서——

國會事務總長署理 權 景 植



多事多難했던 70년도 이제 한해를 보내고 希望에 찬 새해를 맞으면서 韓國速記界의 앞날에 榮光있기를 念願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努力에 의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하에서도 韓國의 各分野가 跳躍의 70년대를 맞아 高度成長의 발판을 構築한것과 마찬가지로 速記界 또한 長足の 發展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였음을 본인은 이자리를 빌어 높히 致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모든 分野의 發展과 成長이 各個人의 能率과 信賴에서 이루어 진다고 볼때 速記는 그 能率의 첨단을 걷는 文化의 利器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本人은 國會事務處理의 원활한 運營을 責任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議事活動記錄의 重責을 담당하고있는 速記人여러분에게 文化의 利器로서의 記術을 더욱 잘고 닦아서 事務의 能率向上을 도모함은 물론 韓國速記界의 무궁한 發展을 위해서 더 한층 분발하실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와 決意로서 오늘을 임하여 굳건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때 본인은 새삼 믿어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불타는 意志가 있습니다.

아직 젊은 青年期의 韓國速記를 이러한 意志와 긍지와 使命感으로서 밀거름을 더욱 든든히 하므로서 보다 훌륭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일취월장! 精進을 바랍니다.

現代人の必須

—第8回 速記講習開講式에서—

朝鮮日報社副社長 劉 鳳 榮

제가 大韓速記協會에서 主催하는 速記無料講習會에 參與해 온 지도 벌써 6, 7년째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젊은 健兒들이 速記術에 關心을 보이는 데 대해서 매우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世上에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없겠지만 速記 역시 힘써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技術을 배워서 터득하고 利用하려고 하는 諸君들의 마음가짐에 커다란 感激을 느끼곤 했던 것입니다.

人間の 意思傳達의 手段인 말이 그때만 지나면 더는 諸君들에게 傳達될 수가 없고 보면 누구나 記錄의 重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結局 文字가 생겼고 文字로 말미암아 人類의 文明이 發達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使用하는 이 文字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같은 速度로 쫓아서 그대로 記錄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 諸君들도 지금과 같이 發達된 速記文字는 아니지만 역시 하나의 速記라 할만한 方法을 생각해 냈습니다. 諸君께서 周知하시는 바대로 漢文에는 草書라



는 體가 있어서 어려운 글짜도 간단하게 몇 획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때 諸君들로서는 이런 程度의 速記로 써도 足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여러 모로 文字가 發達하고 또 모든 事務가 複雜해졌고 諸君들의 發言速度도 빨라졌습니다.

이 發言의 高速化에 對備하기 위해 우리 速記術도 議會와 더불어 近 20餘年 동안 發展해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速記術은 꾸준히 研究되고 또 生活文化의 한 方便으로 活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相對方이 말하는 것을 모두 記憶할 수는 없습니다. 最近에 錄音機같은 것을 使用해서 「테이프」에 吹入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도 누구나 使用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어서 速記士를 必要로 하는 境遇가 많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講義를 들을 때 그 講義에 有益하고 재미있는 內容이 있다고 할 때 速記術을 알고 있다면 그 內容의 全部라든가 또는 概要라도 能히 적어두었다가

뒷날에 다시 한번 그 內容을 吟味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記憶에 의지해서 그 內容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速記는 事務의 能率을 위해서나 知識을 높이는 데에 대단히 必要한 技術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번 講習會에 參加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로 3週間 다른 일이나 여러 事情을 무릅쓰고라도 速記術을 研磨해서 生活의 한 方便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速記協會가 每年 두번씩 放學을 利用하여 이러한 講習會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해서 衷心으로 感謝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第29回 INTERSTENO

第29回 INTERSTENO (國際速記·타이프라이팅聯盟) 부랏셀 大會 日程이 7月 24日 부터 30日까지 7日間으로 確定되었다.

- 7. 24 (土) 中央委員會·大會開會式
- 25 (日) 타이프競技會
- 26 (月) 速記競技會
- 27 (火) 實驗的速記競技會·觀光 (2方面). 中央委晚餐會
- 28 (水) 大會第1部·第2部
- 29 (木) 大會第3部·總會·表彰式·閉會 파티
- 30 (金) 觀光旅行 (2方面)

大會參加費는 參加費 20弗 (美)
파티 8弗
觀光 5~19弗
旅行 10弗

勿論 旅行經費나 滞在費등은 參加國 個人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1人當 韓貨로 35만원 程度로 計算되고 있다.

參考로 그동안 開催되었던 大會地를 메모 해보면 다음과 같다.

- 1955年 모나코
- 1957年 윈
- 1961年 위스트바덴 (西獨)
- 1963年 프라하
- 1965年 파리
- 1967年 베른 (스위스)
- 1969年 마르샤바
- 1971年 부랏셀

協會運營을 말고

理事長 安 仁 榮

前任員陣의 獻身的 努力과 눈부신 活躍으로 그동안 沈滯되었던 事業이 活潑히 展開되어 本軌道에 올라서는 發展途上의 協會이기에 能力있는 일꾼이 좀더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眞正 協會를 아끼는 마음에서 몇차례나 辭讓을 하였지만 第3回 定期總會에서는 力不足인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다.

當面한 時急한 事業때문에 不得已 마겨준 所任을 誠實히 遂行해야겠다는 覺悟로 出發은 하였으나 豫想치 않았던 與件의 變動으로 모처럼 正常軌道에 들어선 協會의 發展을 흐리게나 하지 않을까 하는 憂慮가 질어감을 못내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만 會員乃至는 速記同人들의 積極的인 參與와 支援 그리고 全任員陣의 合心努力으로 諸般 難關이 解消되어 지기를 바란다.

前例없이 全理事의 選任權까지 맡겨준 總會의 決議는 甚찬 責任感을 안겨주었기에 會員여러분의 期持에 副應키 爲하여 意欲에 찬 일꾼을 理事로 選拔하였으며 速記人の 福祉向上과 速記의 大衆化 實現等 本來의 目的達成을 爲해 盡力할 決議를 굳게 하는 바이다.

發展하는 速記協會의 印象을 부각할 71年度의 主要事業을 大別해 보면

- ① 速記競技大會開催
- ② 無料速記講習實施

- ③ 速記學術研究
 - ④ 速記學術誌發刊
 - ⑤ 會誌發刊
 - ⑥ 速記士資格檢定試驗
 - ⑦ 體育大會
- 等으로 볼 수 있다.

1. 速記競技大會

速記競技大會는 지난해에 이어 今年이 第2회로서 速記士들의 實力을 서로 겨루어 보는 것이나 근본적인 뜻은 평소 業務遂行에 있어서 實力培養과 資質向上을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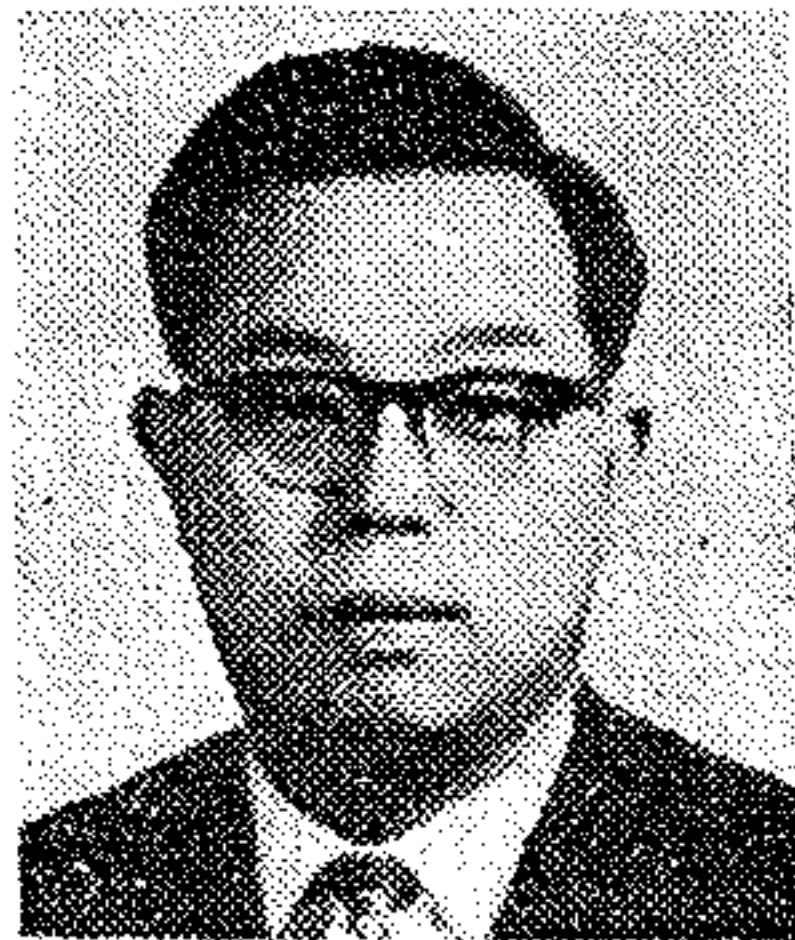
昨年 5月 第1回 大會에는 演說體에 있어 總1600字中 “미스”가 11字로서 0.8% 即 正確도가 99.2%라는 期持以上の 좋은 成績을 낸 速記士가 2명이 나와 高速突破에 新起源을 이루는등 大대한 成果를 거두었다.

第2回 大會에는 보다 正確하고 보다 高速한 速記術向上의 實을 거둘 것으로 믿는다.

2. 無料速記講習

協會의 年例事業으로서 중요한 比重을 차지해 온 無料速記講習의 對象은 여러 方面이다.

첫째 一般인과 大學生에게 放學을 利用한 講習으로 速記認識이 不足한 社會에



速記의 實用性을 普及하여 속기의 生活化를 위한 계기를 만든다.

둘째 法院書記 및 檢察書記에 대한 講習으로 100명을 30일간 實施하여 記錄業務의 近代化를 꾀한다.

세째 言論機關從事者에 대한 講習으로 100명을 30일간 實施하여 言論의 生命인 迅速報道를 위한 速記의 寄與度를 높일 計劃이다.

넷째 各級學校巡廻講習을 함으로서 학생층의 筆記生活에 도움을 주어 速記를 生活화한다

3. 速記學術研究

韓國議政史 20年을 記錄해서 記錄報國의 자세를 가다듬어 온 速記術을 學問으로서 定立시키고 筆式별 手筆速記를 比較研究해서 高速化를 도모하며 나아가 科學社會에 발 맞추어 打字速記의 研究 및 「컴퓨터」速記의 可能性을 探索한다.

4. 會誌發刊

協會의 機關誌 「速記界」를 계속 發刊함으로서 發展하는 速記界의 모습을 社會에 PR하며 速記學術研究發表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도모하며 會員의 의사를 反映하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5. 速記士 資格檢定試驗

이는 昨年부터 協會主管으로 施行해온

것으로 國語速記와 英語速記를 1~8급까지 協會가 速記士의 實力를 公認해 주어서 速記士의 資質을 向上시키며 社會의 信賴度를 높인다.

6. 體育大會

速記人間에 排球대회와 탁구대회를 열어 人和親睦과 體位向上을 圖謀코저하는 바 많은 會員의 積極적인 參與로 소기의 目的達成이 기대된다.

이상 今年度 重要事業을 들어 보았다 昨年은 國庫補助를 받는 첫해로서 劃期的으로 速記展示會를 開催했고 速記競技大會와 速記士 資格檢定試驗을 實施했으며 會誌創刊을 보았다.

흔히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意欲적으로 出航하나 難關에 부딪치면 중도에 흐지부지되는 傾向이 많다.

速記協會는 이런 惡傾向을 脫皮해서 한번 年例事業으로 시작된 것은 효과적으로 繼承 施行해서 發展하는 速記協會의 傳統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協會任員陣의 獻身的 努力이 있어야함은 말할나위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會員全體의 參與意識이 要請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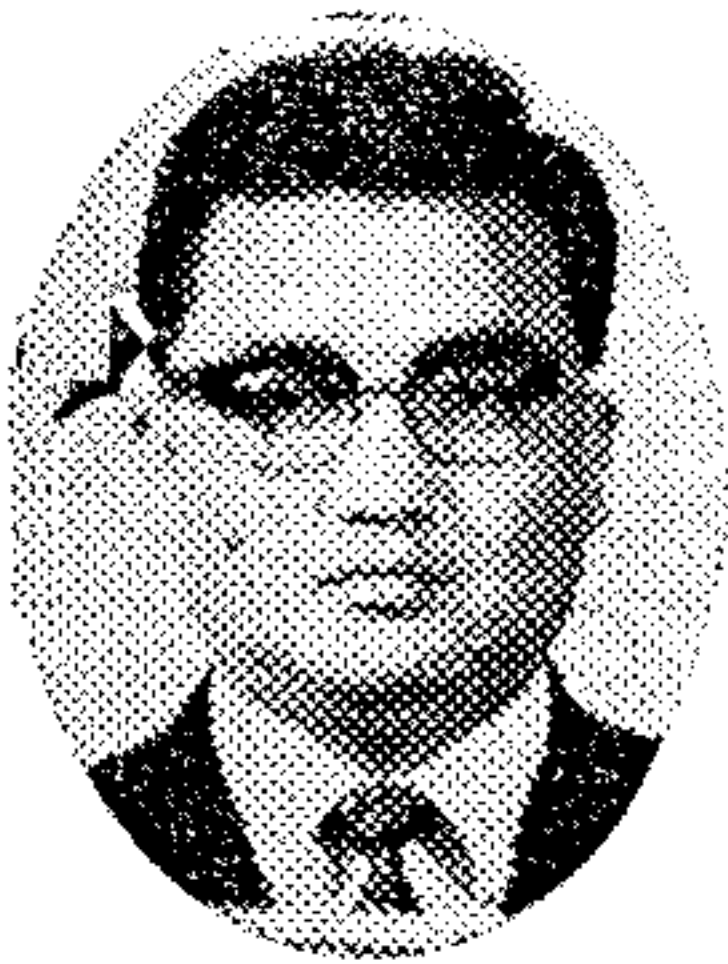
會員各者가 나의 協會 나의 事業으로 생각하고 밀고 끌고 나갈때 우리의 協會는 끊임없이 發展될 것이며 記錄文化의 金字塔는 세워지리라 믿는다.



資質向上의 問題點

—國會速記士를 中心으로—

李 龍 洙
〈資格審査委員長〉



序 言

速記士의 資質向上에 대한 문제가 이제 처음 學論되는 것이 아니고 本誌(速記界)에서도 이미 약간은 言及된바 있으며 各機

關에 勤務하고 있는 現職速記士들간에 機會있을 때마다 學論되어 온터이다.

이는 速記士의 職務가 크게는 成年에 이른 우리나라의 議政史를 생생히 記錄保存케 해 왔음은 勿論 政治 經濟 文化 社會 各部門에 걸친 多方面의 討論을 記錄하여 大衆에게 傳達하는 媒介的 役割이나

로 生活樣式이 多樣化되어 가는 社會속 生存競爭의 相反된 利害關係로 惹起되는 論爭에 대한 有力한 證據力의 保存者로서 실로 速記士에게 負荷된 社會的인 任務가 적지 않음을 想起하고 文化의 發展과 漸益되는 스피드 社會의 要求를 外面하지 않는 速記士들일진면 우리말 速記의 불모지대에서 우리나라의 議政史와 더불어 20여년동안 發展 成長시켜온 기반 위에 더욱 빛나고 알찬 速記文化의 구축을 위해 速記士들 스스로의 資質向上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討論하고 速記士들의

資質向上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그 方法과 改善策은 어떠한가를 考察하여 이에 따른 不斷한 研究와 努力를 傾注하지 않으면 안될 때라고 본다.

1. 바람직한 速記士의 資質

어느 職種이고 간에 그職種에 要求되는 資質이 있듯이 '社會의 公益과 密接히 關聯되는 職種인 速記士에게는 他職種보다 더욱 特殊한 資質의 所有가 要求되는 것이다.

그러면 速記士에게 要求되는 資質은 어떤 것인가?

첫째 明哲한 頭腦와 先天的인 素質의 所有者 즉 速記士는 우선 一定한 速記法式을 習得하고 自己가 習得한 速記術로 言語 速度와 一致하여 一言一句의 누락도 없이 正確히 記錄하고 이것을 翻文할 수 있는 能力이 具備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能力을 具備하기 위해서는

먼저 速記士가 習得하고 熟達해야 할 速記法式의 構成이 言語速度와 一致된 記錄이 不可能한 一般文字(한글 漢文)와는 類形이 다른 表記劃을 高度로 略化시킨 一種의 暗號와 같은 點의 位置와 線의 長短, 方向, 曲, 直, 太細線의 區別에 이

르기까지 纖細한 符號文字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速記術의 熟達過程은 다른 學術과 같이 公式이나 法則의 理解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再論의 餘地가 없거니와 일단 所定の 資格要件을 具備하고 速記士의 資格을 받아 現職에 勤務하는 者라도 이러한 高度로 略化된 纖細한 符號文字를 自己 自由 自在로 運筆하기 위해서는 손 작용의 柔軟性을 維持해야하고 平素에도 不斷한 速記術의 연마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速記의 基本 意義가 言語速度와 一致하여 一言一句의 누락없는 事實에 充實한 記錄이므로 一般的인 言語速度인 1分當 300音字 即 一秒간격에 5音字내지 6音字以上을 記錄해야 하는 敏捷性이 要求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敏捷性을 發揮하기 위해선 優秀한 記憶力과 精神集中力은 勿論 視覺 聽覺 感覺(關節과 筋肉의 柔軟性)이 三位一體가 되어 言語의 순간순간을 「갯취」해 나가야 하는 一秒에 쫓기는 어려운 職務이기 때문에 이러한 職務를 遂行해나가는 速記士는 그야말로 先天的인 素質과 明哲한 頭腦의 所有者가 아니어서는 困難하다 아니할 수 없다.

2. 法式改良

어느 學問이나 學術도 그 本來의 概念은 時代의 變遷에 不拘하고 變形되지 않더라도 應用解釋은 그時代의 潮流에 立脚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速記文化도 解放後 20여년동안 갖은 風霜을 겪어오면서 時代의 要求에 即應키위해 많은 改良과 發展을 거듭시켜 왔다. 그러나 近

來에 急速度로 發展되는 近代化의 물결속에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諸分野의 生活樣式이 多樣化되었고 多樣化된 生活樣式은 「스피드」화된 生活 樣式을 追求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社會의 環境과 潮流는 固陋한 貫祿과 威嚴만을 崇尚하는 舊世代에서 精力과 活動力이 넘쳐흐르는 젊은 世代에로 交替되어가고 이 젊은世代들이 社會生活의 主役을 맡아가게 됨에 따라 速記로 相當해야할 對象人들의 言語速度가 현저히 빨라지고 있음을 窺知할 때 現存하는 우리나라의 速記法式을 習得한 速記士들이 速記士의 제구실을 다해 나갈지는 疑問視 아니될 수 없다.

이는 筆者만이 느끼고 있는 疑問點이 아니고 現職速記士들이 다같이 共感하는 事實인 것이다. 이같은 速記士들 스스로가 갖는 疑問點의 解消와 時代의 要求에 即應하고 두터운 社會의 公信力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現存速記法式들의 體系的인 綜合的 改良과 어떤 內容의 記錄에 當해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各分野에 結晶 專門用語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論語 孟子 佛經과 「바이블」 「그리스」의 神話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科學的인 分野에서 化學 質名 各種機器名 또는 微生物名에서 부터 物理的 學術名稱에 이르는 모든 分野의 專門用語에 대한 터득과 이에 대한 速記 略字의 研究가 時急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3. 研究機構

이와같은 諸分野의 專門用語에 대한 터득과 이에따른 速記略字의 研究가 一朝一夕에 이루어 지기란 결코 容易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國會速記士의 主業務對象이 國會本會議와 13個 常任委員會 會議錄 作成이고 보면 各常任委員會 專門分野別 研究對象은 너무나 龐大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指摘했듯이 速記士들은 남다른 忍耐力과 先天的인 明哲한 頭腦의 所有者들이라는 點을 勘案할때 研究對象의 難易와 龐大性을 論하기에 앞서서 速記士 個個人的 精神姿勢문제이다. 卽 換言하면 速記士들 스스로가 自律的으로 非公式 組織일지언정 各委員會 專門委員을 諮門委員으로 추대한 各委員會別「速記業務改善研究委員會」와 그外에「方言 및 發言樣態研究委員會」를 構成하여 速記業務改善을 위한 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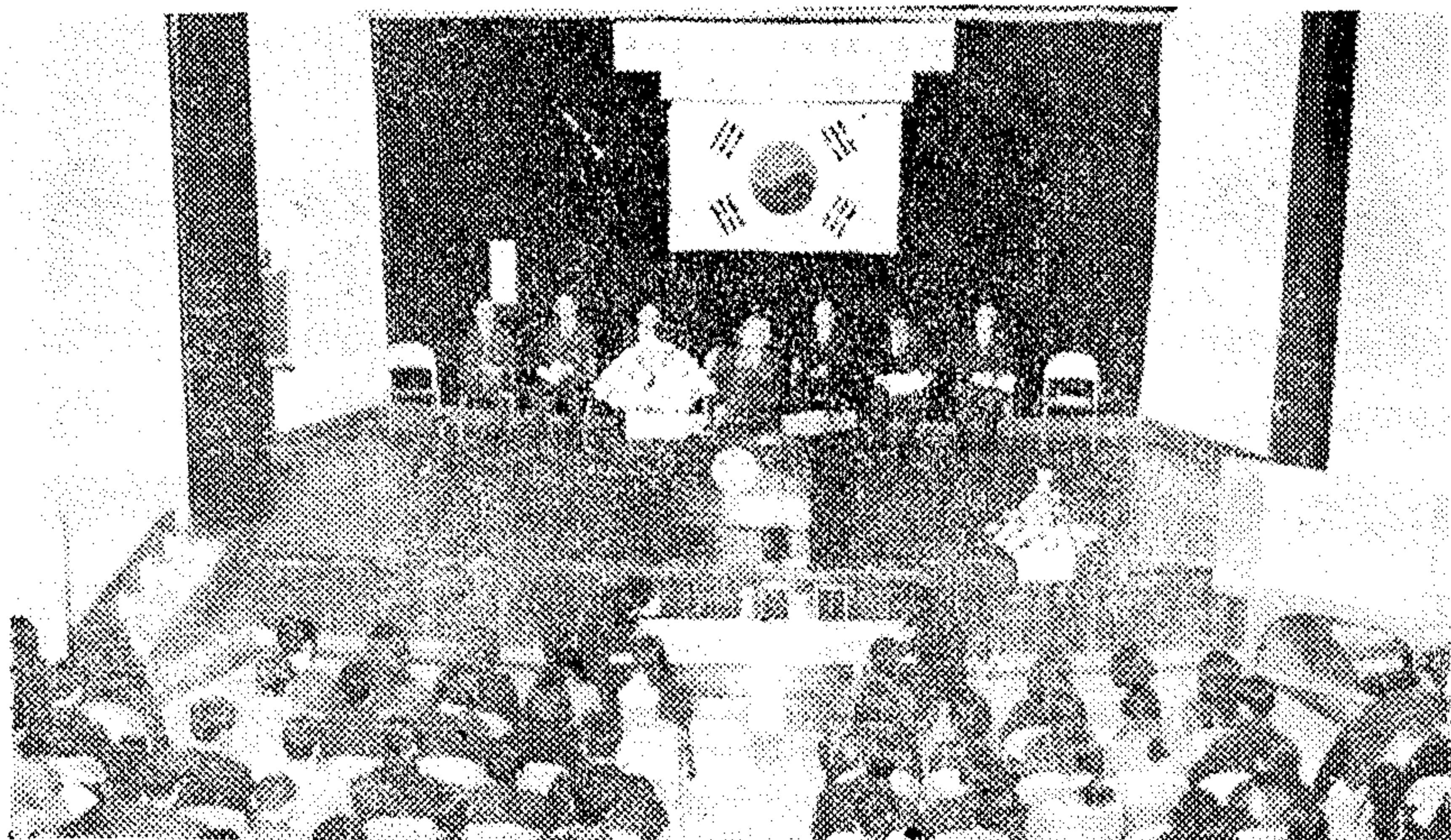
究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보다 進就的으로 議員들의 立法活動에 있어서 絶對적인 뒷받침이 될수있는 各常任委員會別 專門分野에 대한 資料의 蒐集과 統計資料의 定立 및 常任委員會의 上程豫想案件에 대한 事前的인 檢討等 未開發 事項들을 찾아 研究해야 할것이다.

이런 事項들이 全課員들의 和氣애에 한 團合속에 實踐運營된다면 速記士들의 資質向上 뿐만아니라 眞 眼目으로는 將來에 대한 앞찬 하나의 活力素가 될것임은 勿論 各常任委員會와의 眞밀한 紐帶의 強化와 國會內에서의 速記士의 位置도 한층 더 向上 되리라고 본다.

資 格 審 查 委 員 會

委員長	李	龍	洙
幹 事	全	海	成
委 員	金	永	善
委 員	孫	弘	基
委 員	梁	源	龍
委 員	高	用	培
委 員	宋	博	文

第 8 回 冬季無料速記講習



해마다 實施에 오고 있는 一般公開無料 速記講習의 冬季講座가 今年 1月 12日부터 2月 2日까지 3週間 盛大하게 開催되었다.

이번 第 8回 冬季無料講習에도 亦是 前年과 같이 國語速記(東邦法式)와 英語速記(gregg式)를 同時에 開催했던바 國語에 812名(男 479名 女 333名), 英語에 245名(男 119名 女 126名) 計 1057名이라는 前例없는 大團員의 受講生이 殺倒했다. 特히 受講生中 50%가 女性이 占하고 있는 趨向으로 보아 速記分野에도 며지않아 女性의 積極的 進出性向이 豫見되고 있다. 職業別로는 大學生이 50% 公務員 기타 會社員이 50%로 特히 學生의 경우 女大生이 壓倒的이었으며 年令別로는 60代에서 이 제 12살짜리 꼬마도 끼어 있어 異採를 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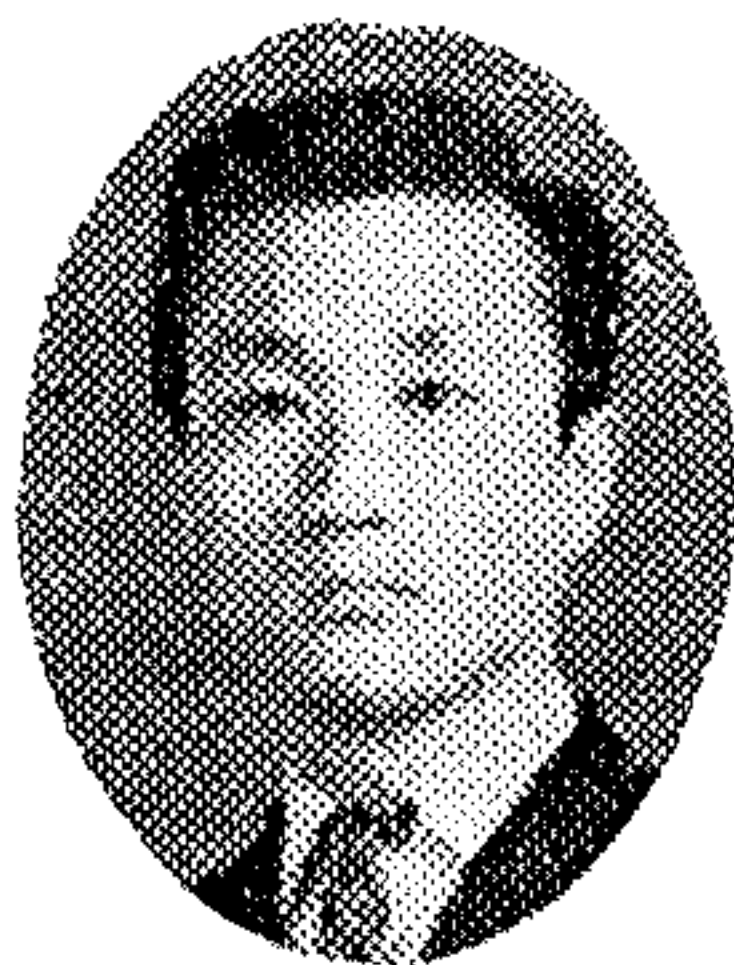
YMCA 大講堂 1000餘名の 受講者가 雲集한 가운데 열린 첫날 開講式에서 朝

鮮日報副社長 劉鳳榮先生과 國會文公委員會專門委員이며 本協會顧問인 任哲淳先生의 來賓祝辭가 있었으며 國會議事局長 河在鳩先生의 <國會와 速記>란 講演이 있었고 國會速記擔當官인 金鎮基先生으로부터 <外國速記界紹介>가 있는 다음 國語와 英語速記의 實技示範이 있었다.

朝鮮日報社와 文化公報部 후원으로 政府補助金에 의해 開催되는 이講習會는 해를 거듭 할 수록 一般의 參與度가 높아 감에 따라 効率的인 成果를 挙우기 위해 短期講習敎案을 비롯한 諸般問題가 綿密히 再檢討 되어야 겠다는 것이 協會任員들의 共通關心事였다.

即 1000餘名の 놀라운 受講申請에 비해 3週間の 全課程을 마친 修了者는 國語速記의 경우 318名(39.1%) 英語速記의 경우 95名(39.2%)이라는 低調한 成果는 初學者에게는 너무 어려운 敎育過程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分析되고 있다.

英語速記講習의 方向



盧 英 民
〈外國語部長〉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傘下에 外國 速記部가 正式으로 加入된 以來 最初로 實施된 無料 講習事業으로서 지난 1月 12日부터 3週間 本協會 指定 學院인 東邦 速記學院과 時事英語學院에서 講習을 無事히 끝마치었다.

聽講希望 豫想人員인 200名을 훨씬 超過한 240餘名인 것은 去年에 施行한 夏季講習會의 受講者數 115名에 比해 그 2倍가 훨씬 上廻하는 人員數라 하겠다.

冬季 講義를 直接 擔當한 筆者로서 몇가지 點檢해 보면

첫째 〈講習 時間과 施設問題〉

勿論 講習의 主要目的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英語 速記라고 하는 技術을 좀더 大衆에게 널리 普及 시키고 특히 많은 知識人들에게 그 効用度를 認識시켜 日常生活에서나 職業戰線에서 또는 家庭生活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데에 그 큰 目的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講義를 하는데 있어 한班에 百名이 훨씬 넘는 人員을 收容함은 그 聽講者 自身이나 講師 自身이나를 莫論하고 그 講義 自體에 完璧을 期할수가 없음은 周知의 事實이 아니겠는가 講習도 亦是 그 普及面에 있어서 充實을 期해야함은 勿論이려니와 聽講

者에게 完全한 理解를 시킴이 더욱더 重要할 뿐만이 아니라 그 認識度 역시 크기 때문이다.

正規 講議時間에 그 收容能力이 20名인 데에 比하면 5倍가 넘는 人員이다.

다음에 施行할 夏季講習會에는 이 點을 特別히 감안하여 講議時間을 늘리고 講師 亦是 增員하여 그 人員을 定員制로 함으로서 좀더 알찬 講義를 해야함이 講習會의 目標를 達成하는 賢明한 方策이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 〈受講者의 設問分析〉

- ㉠ 全體學生中에서 速記를 알기 爲해서 受講한 學生이 42%
- ㉡ 親舊의 말을듣고 受講한 學生이 20%
- ㉢ 新聞 及 RADIO를 보고 受講한 學生이 5%
- ㉣ 우연히 지나가다가 受講한 學生이 33%

以上의 分析에서 보다시피 速記가 무엇인가를 알기 爲해서 受講한 學生이 많은 것은 많은 層에서 速記에 關해서 큰 關心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저 그런 程度의 姿勢로 受講에 임해서인지 의외로 落伍率이 높았다.

그러나 더 繼續에서 배우고 싶다고 하

는 學生이 全體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現在에는 여러가지 事情으로 더 繼續 하지를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必要性을 느낄 때에는 꼭 다시 더 배우겠다고 하는 點을 알 수 있다.

셋째 <獎學金 制度의 實施>

이 問題는 筆者自身の 個人的인 私見에 不過하나 아주 特殊(EXCELLENCE)한 學生에 對해서는 一定한 所定의 獎學金을 支給하여 줌으로서 그 士氣를 昂揚(exalt) 시키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어서 專門速記士가 必要함에 비추어 보아 相對的 價値가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有能한 專門速記士를 養成하기 爲해서 會話(CONVERSATION), 語彙力(WERD POWER), 文法(GRAMMAR), 英作(COMPOSITION), 打字(TYPING)實力이 뛰어난 學生들을 募集하여 長期間 特殊教育을 시켜서 國內外에서 開催되는 國際會議나 그밖에 對內外的으로 名實共히 專門速記士로서의 資格을 갖춘 REPORTER를 養成함이 絕對적으로 必要하며 또한 매우 時急한 問題가 아닌가 생각한다.

넷째(需要와供給의 法則)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

이 問題는 大端히 重大한 問題로서 需要過多가 되어도 안될 것이며 또한 需要減少가 되어도 안될 것이다. SUPPLY AND DEMAND가 언제나 平衡을 이룰수는 없으나 차더라도 어느 程度의 BALANCE는 맞아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나 確定된 需要度(DEFINITE DEMAND)가 不振狀態인 것이 現下 實情인바 이 問題에 關해서 筆者의 見解를 提示하고자 한다.

優先적으로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內에 外國語速記部가 있어 現在 各部處에서

必要로 하고있는 有能한 秘書要員을 養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ROUND TABLE CONFERENCE에 對處할 수 있는 EXCELLENT REPORTER가 있고 各大學校나 外國人 商社에 出講을 할수있는 經驗이 豊富한 講師(LONG STANDING EXPERENCED PROFESSOR)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內容을 담은 CIRCULAR LETTER를 FORWARD하여 國內 各外國人商社나 官公署 또는 大學校 大學院에 公知토록 한다면 THE LAW OF SUPPLY AND DEMAND가 좀더 圓滑해 지지않을까 하는것이 筆者의 見解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DEMAND가 圓滑해지고 DEMAND가 圓滑이 됨으로 因해서 SUPPLY 亦是 圓滑히 된다면은 周知의 事實이 아니겠는가 그럼으로써 速記에 對한 社會의 認識이 달라지며 速記의 大衆化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去年 韓國職業女性處遇問題에 關한 研究의 SEMINAR에서 舉論된 問題中の 하나로서 現在 國內 各職場에서 從事하고 있는 各種 秘書들의 그 處遇가 先進國에 比한다면 그 일의量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은 報酬를 받고있다고 하는 事實이 指適되었다. 그 會社의 既存慣例대로 모든 秘書들에게 處遇되고 있는것이 現實情인바 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方策으로서 秘書의 處遇問題에 關해서는 一定한 DATA와 資料를 蒐集하여 그 GRADE를 定하여 그 GRADE에 依하여 秘書들의 處遇를 定해진다고 하는 點은 참으로 반가운 NEWS라 하겠다.

끝으로 速記의 大衆化가 實現되는 ROYAL ROAD는 THE LAW OF SUPPLY AND DEMAND가 圓滑히 實現되는 그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배운 속기

서울인왕국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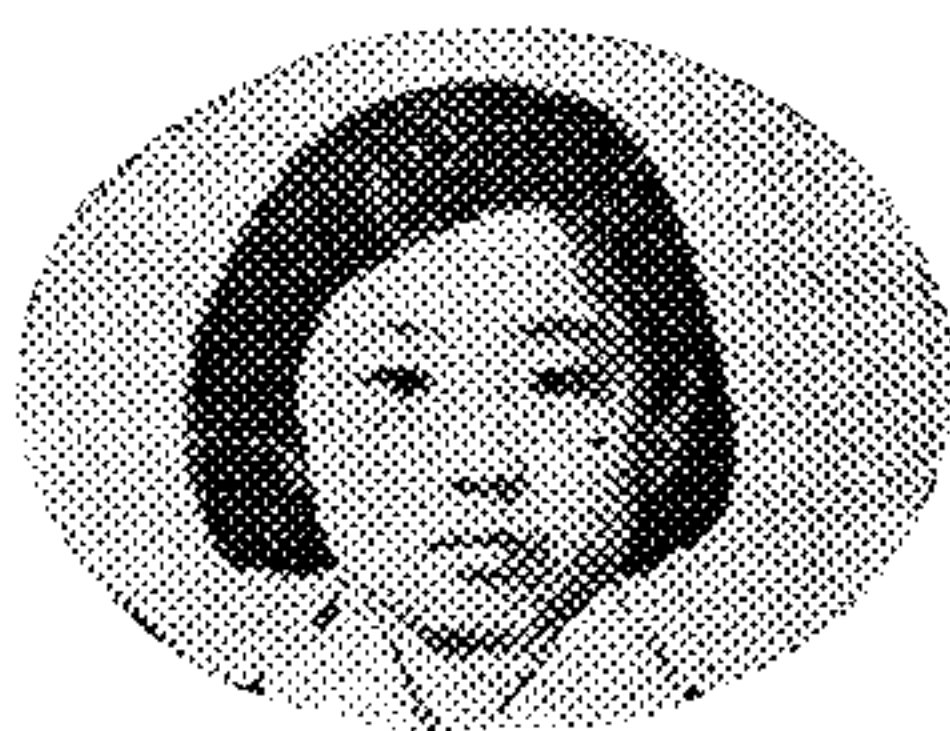
6-9 나 은 주

註 : 지난 夏季無料講習에 있어 最年少受講生이었던 나은주(12) 嬢이 그 나름대로 그가 겪은 受講所感을 보내왔다. 꽤 어른스러우면서도 귀여운 才談이 表現되어 있어 여기에 실는다.

내가 속기를 배우려 할때는 나만한 아이가 없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거의가 다 어른들과 대학생이었다.

「괜히 배우려 했나봐」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런사이에 끼서 배워보고도 싶었다. 첫날 내가 들어가자 구석구석에서 킁킁대며 웃는사람도 있었지만 난 못들은체 했다.

그날 배운것은 무척 어려웠다. 그러나 집에와서 써보고



익히니 별로 어렵지도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은 가기가 꽤 싫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더 속기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다 내가 속기를 배우기전엔 속기란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다 선생님 말씀도 있듯이 만약 우리가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다면 3주간 동안에 한글을 다 알지못했을 것이다.

그냥 생각하면 속기가 참 복잡하고 생각할점이 많다고 생각돼나 몇년 몇십년을 두고 익힌다면 한글처럼 손이 기계화 될 것이다 이런점등을 보면 속기는 역시 한

글보다 아니 어느글 보다 쉽고 간편하다고 느껴진다. 이런 속기를 더 배우고 싶지만 더 배우지 못하는것이 더욱더 아쉽다 나는 조금이나마 머리에 익힌 속기를 이용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뿐이다.

<1971년 2월 1일>

○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牛乳가 되고 毒蛇가 마시면 毒이 된다



言語와 對話의 어떤 이야기

국회속기사 양영소(제 3기 졸업)

張 淑 卿

傳說을 사르고
 하늘을 딛고 선
 바다 저쪽 飛行人과
 時速 100KM의
 우리네
 고속버스 승객만이
 탄막하는 快速이 아니다.
 × ×
 푸름이 무한한 창공을
 동경으로 족한
 창경원 애완 새 처럼
 급진하는 인간 思考의
 黎明이 된
 速言을
 하나에서 둘을 찾자고
 확대경을 필요로 할것인가.
 × ×
 記錄文化의
 필봉으로
 必然時 된
 人間 콤퓨터.
 × ×
 청각의 반영이
 투영되는 손길.
 點과
 線과 리듬지는 울동으로
 여울지는 언어의

使徒.
 그속에 숨은 숨소리
 높이 널리 들렸으라.
 × ×
 길이 깊숙한 진리에의 징검다리로
 바람비 젖은 옷으로 달려온지 스무해
 총만한 태양의 온실에서
 더러 묵마른 거리 구석에서
 생생의 꽃잎 베물고
 수고로운 땀을 흘리는
 純하고 향기높은 園藝家.
 × ×
 오늘 더욱 굳어 다져지는
 역사의 전당 어루만지며
 불을 밝혀 밝음 찾아
 손끝의 활자를 낳는
 助産員.
 × ×
 새 역사의 창조위한
 俱現者로
 言文一致의
 숭엄한 뜻을 높이고
 양식과 노를 저어
 출항하는
 純銀의 뚝뚝위에
 순풍이 어라
 記錄文化에 으뜸있으라.

國會에서의 會議錄作成上の 問題點

金 鎮 基

註：이 <세미나> 拔萃錄은 지난 1970年 12月 28日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速記界의 懸案문제를 놓고 研究發表會가 있었던바 그 速記錄中에서 간추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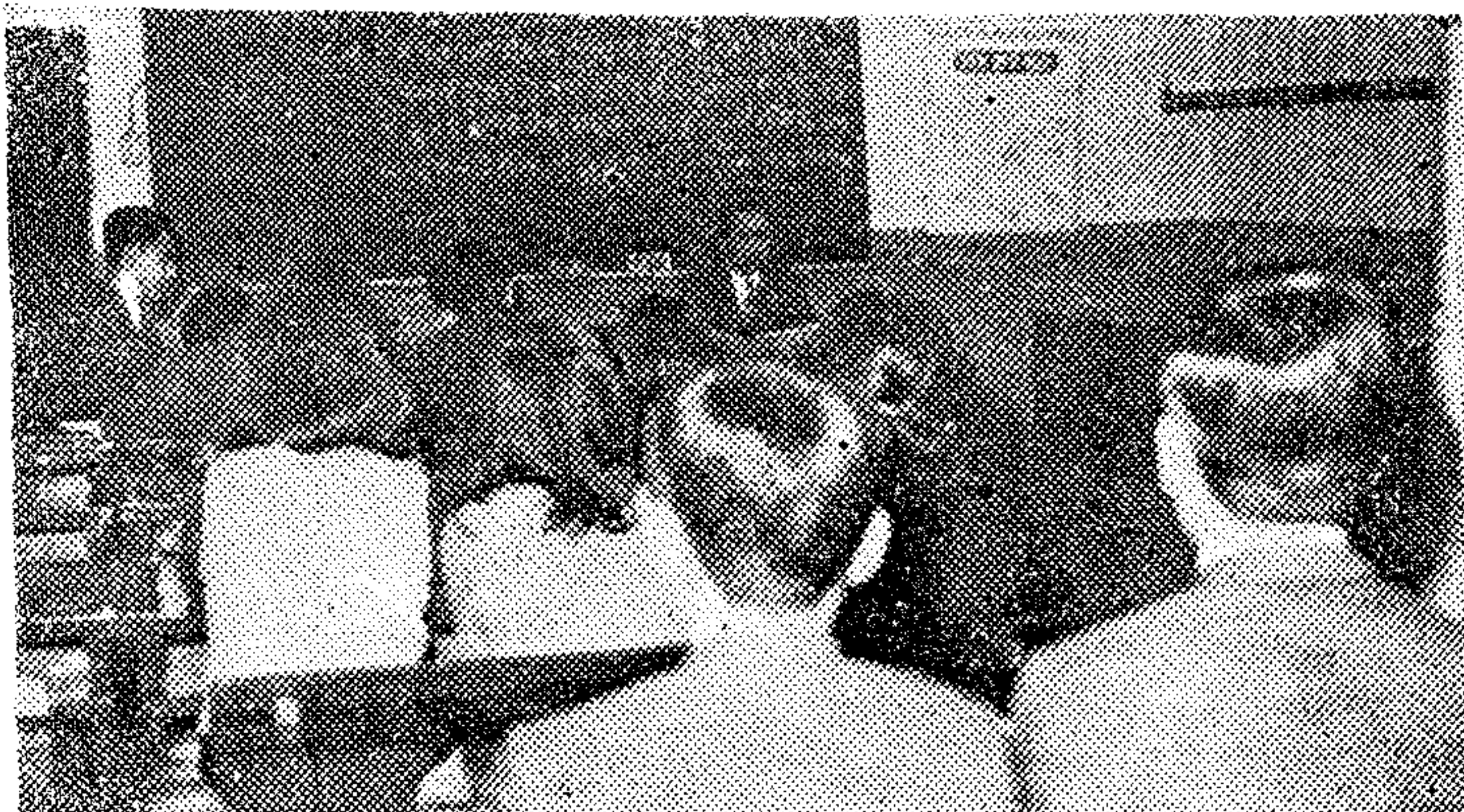
序 言

大韓速記協會가 그동안 많은 劃期的인 事業을 벌여 좋은 業績을 쌓아 올렸는데 오늘 또

이와 같은 좋은 機會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먼저 協會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 이 사람에게 주어진 主題가 <國會

에서의 會議錄作成上の 問題點>인데 우리가 日常速記근무중에 提起되는 問題點 또는 國會會議錄作成 業務執行過程에서 提起되는 問題點 등등에 提及할 수 있는 現實的인 命題라고 생각하느니 이와같은 問題點들의 窮極的인 歸向點이 어떻게 하면 會議錄을 正確하게 그리고 迅速하게 作成하느냐 하는데에 歸着됨으로 나는 여기에서 時間制約上 枝葉的이고 具體的인 事例은 避하고 다음과 같이 概括的인 要點만을



간추려 開陣코져 한다.

1. 技術熟練문제
2. 人間性문제
3. 制練문제

1. 技術熟練 문제

端的으로 表現해서 速記士 個個人的 優劣의 差가 深하다는 事實이다. 速記士로 進出한 後 4,5年이 되어도 單獨完全速記를 할 수 없는 狀態에서 技術이 向上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看過할 수 없다는 事實이다.

우리가 從前에는 1分時 300音字의 速度를 最高基準으로 한바 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發言速度의 高速化에 따라 完全實務者가 되려면 적어도 3백 4,5십 音字 이상의 記錄能力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모든 速記士가 일단 速記士가 된 後라도 꾸준히 高速 實力向上을 위해 不斷한 努力이 繼續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各者의 速記運筆方式을 繼續해서 改良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2. 人間性問題

人類文化社會의 어느 分野에서나 이 人間性問題가 차지하는 比重은 거의 絶對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물며 이나라의 議政史를 기록하는 歷史的使命感에서 잠시도 뒤돌아 볼수없는 速記士로서 그 莫重한 責任意識의 缺如나 公務員으로서의 姿勢確立 缺如란 가장 重要한 問題點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自己가 맡은 業務를 自己責任下에 完全無缺하게 即 發言內容을 正確하게 잡고

절못 醜文되는 일이 없도록 最低을 다한다는 責任意識이 先行되어야 겠다는 것이다.

不幸한 일이지만 一部 速記士들의 動態를 살펴보면 이러한 責任意識缺如로 個個人的 實力向上을 위한 꾸준한 努力을 하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退步의 現象이 나타나는데 슬픈 事實을 종종 보게된다. 아무리 우리들 스스로의 恥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來日에의 榮光을 위해 그대로 눈감아 버릴 수 없는 일이다.

國會의 休會期間이라는 많은 餘暇를 통해 보다 自己完成에의 不斷한 挑戰이 要請됨은 勿論이다.

한가지 卑近한 例를 들면 國會本會議速記의 경우 速記補助用으로 錄音을 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인바 一部 速記士中에는 自己의 實力을 過信한 나머지 錄音對照를 하지 않음으로서 結果적으로 重大한 誤譯을 하는 例를 가끔 볼 수 있다. 또한 主務 副務를 一組로 하여 2人이 동시에 速記케하는 것은 相互 補完토록 하기 위한 制度로서 반드시 相互 對照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亦是 이를 外面함으로서 重大한 <미스>의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各者 責任意識 缺如에 緣由된 것이라 보고 우리들 스스로의 人間性啓發의 <캠페인>이 아쉽다.

3. 制度問題

우리나라의 現 國家的인 諸般 與件과 관련해서 國會 會議錄을 發刊하기 위한 制度와 體制는 그런대로 最大의 配慮가 되어있다고 하겠으나 몇가지 補完하고 是 正해야 할 點을 論及한다면

① 機 構

現 國會速記課 全人員이 120餘名인바 이 많은 人員을 한 課로서 運營해 나간다는 것은 人事管理面으로나 業務管理面으로 多少 無理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時期에 가서는 반드시 機構改編의 必要性이 要請된다.

② 技術向上

技術向上을 위한 方法을 制度的으로 講究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即 速記學校를 우수한 成績으로 卒業 國會速記士로 採用된 후 自己技術向上을 위한 努力을 하지않음으로 말미암아 時日이 갈수록 오히려 能力이 低下되는 現象을 招來하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解決하기 위해서 制度的으로 技術向上을 위한 方法을 講究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③ 速記監督官

現在 日本에서 採擇하고 있는 監督官制度 導入문제인데 이것은 各 委員會마다 1人씩의 速記監督官을 파견 該 委員會 會議內容을 始終 傍聽, 重要部分을 메모케 함으로서 20分交代 間絶速記에서 오는 缺點을 막아 正確한 會議錄作成에 寄與케 하는 制度이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時日內에 이 制度가 實現되어져야 할 것이다.

④ 會議錄印刷

委員會 會議錄 迅速發刊을 위한 것으로

尙今 各委員會 速記原稿는 翌日 完了되는 實情이나 印刷過程에서 1週日 이상의 時間이 所要되고 있다. 이는 國會가 直接 印刷施設을 갖지 못하고 民間 印刷業者에게 用役契約을 줌으로서 不可避한 現象이지만 앞으로 이 委員會會議錄 迅速發刊을 위해서 國會가 直接 印刷施設을 갖추든가 아니면 적어도 3,4個 委員會別로 印刷所를 分離해서 用役契約을 준다면 解決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⑤ 打字機

速記翻文過程에서 現在 筆記 翻文으로 하고 있는 作業을 한글打字機를 利用해서 번문하는 體制로 轉換한다면 會議錄發刊過程이 더욱 빨라지리라고 思料된다.

結 言

이상 세가지 面에서 檢討해왔지만 亦是 보다 次元을 높여 歷史的 使命感에서 보람을 찾는 우리速記士 各 個個人이 正確하고 迅速한 議政史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 스스로의 人間性 문제이다. 透徹한 使命感에서 모든過程이 人間關係로 調和된다면 우리들에게 負荷된 任務遂行에 貴重한 潤活油가 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國會·速記擔當官>



速記需要處의 開發方案

李 康 賢

速記需要處는 그 開發對象을 ①固定職速記(職場速記) ②時間制速記(請託速記) ③事務速記(非專門速記)등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固定職速記에 있어서는 速記士의 本產地라고 할만한 立法院만이 國會法으로 制度化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論外로 한다.

事實 가장 重要的 需要處가 되어야 할 行政府는 速記士를 거의 두지 않고있다. 몇년 前만 해도 各部處마다 몇名씩 速記士들이 있었으나 待遇關係로 職務忌避 또는 離職을 하고 만 것이다. 그 主된 原因은 豫算이나 TO가 없다는 것과 더구나 速記士의 必要性을 認識치 못했다는 데 있다.

協會는 PR活動에 힘써서 速記의 必要性을 널리 認識시켜 豫算을 確保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速記士法을 制定하여 速記士의 公信用을 確立하고, 離職을 防止할 수 있을 만큼 權益을 擁護하며 法律的으로 認證되는 資格證을 주어 總務處에 登錄한 뒤 必要部處에 發令하게 하는 政策的인 뒷받침

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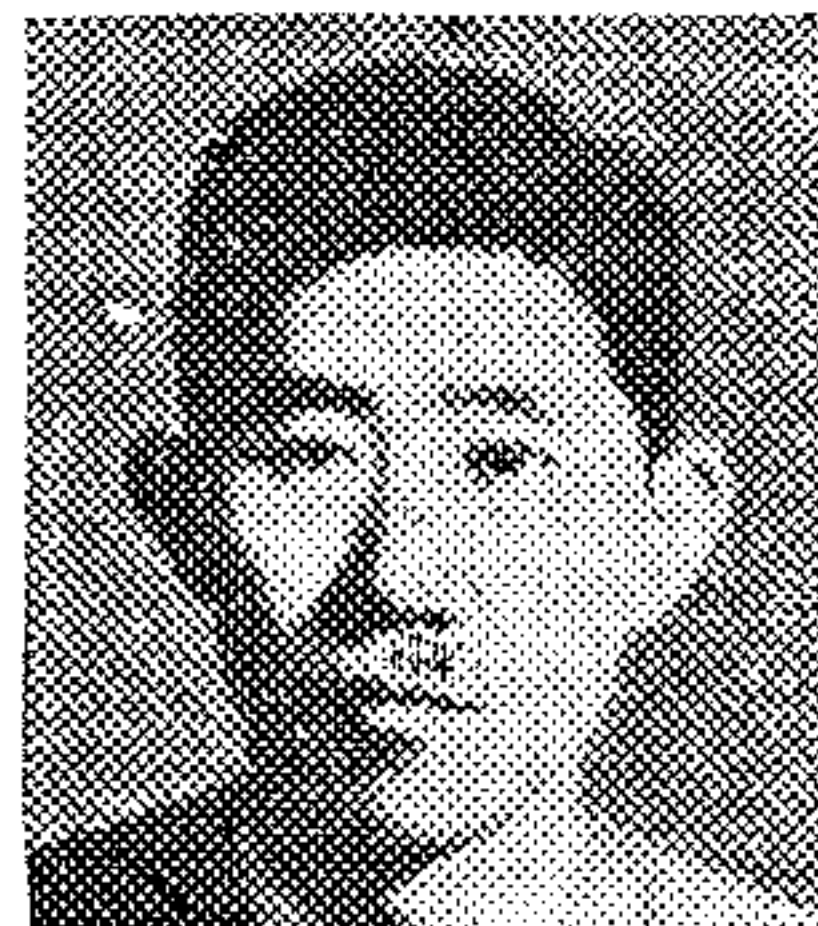
다음으로 協會創立時부터의 至上課題인 法院速記의 開發이다. 1969年度 大法院 豫算에 9名의 速記士가 「모델·케이스」로 올라 있었으나 經濟企劃院에서 削減되는 바람에 契機를 逸失하였다.

그후 1970年度에 錄音器 10台를 購入하여 複雜하고 重要的 事件의 審理, 處理를 錄取 保管해 두었다가 問題가 생기면 그 部分만을 書記가 記錄하는 것이다.

우리과 다른 他速記協會에서 今年 法院書記들에게 2,3個月의 講習을 實施한다고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解決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여기에는 打字速記法을 考案해서 實利段階가 온다면 進出할 수 있다.

行政府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公私企業體의 경우도 事情은 비슷하다. 速記士라야 極少數이고 처음엔 速記士로 들어갔지만 待遇나 昇進關係로 離職하는 現實이고 보면 速記士法의 制定만이 需要處를 開發할 수 있는 確實한 方案이다.

昨年 本協會에서 各 公私企業體에 다음과 같은 設問을 보냈었다.



「貴社에서는 會議錄을 어떻게 作成하고 있는가?」그 對答으로는 理事會나 總會 때는 外部의 速記士를 臨時契約해서 時間制로 쓰기도 하지만 自己네가 略記하는 境遇도 있다는 것이다.

「速記士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必要性은 느끼지만 豫算이 不足하다는 答이었다.

이 역시 政策的으로 問題를 解決하는 수밖엔 없겠다. 即 商法에 「理事會나 株主總會 臨時總會는 速記法에 의한 會議錄을 作成하도록 한다」라는 強制規定을 넣는다면 速記需要處는 저절로 開發될 수 있지 않겠는가?

言論機關도 마찬가지로 現在 速記士가 한 명도 없는 걸로 보는데 좋을 것이다. 前에 速記를 했던 분들이 兼職을 하거나 이미 昇進을 해 버려서 必要할 때 外部速記士를 時間制로 臨時契約해서 쓴다.

日本과같이 紙面을 36面 程度나 낸다면 몰라도 우리의 紙面事情으로는 速記士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하겠다. 于先 新聞社 自體에서 與件이 이루어진뒤 우리가 開發할 수 있는 餘地가 생길 것이다.

이번 東亞日報에서 一部 修習記者들에게 速記講習을 시켰는데 여기서 成果를 얻는다면 日本의 共同이나 每日 讀賣처럼 速記士가 採用될 좋은 契機가 될지도 모른다. 新聞社는 어디까지나 競爭이니까 他社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하는 展望을 가져본다.

部門別로 보면 教育界는 教育法 施行令 166條에 技術學校 또는 高等技術學校에서 教育을 實施함에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課目으로 速記가 採擇되어 있다. 그러므로 速記教師를 養成 輩出할 수 있는 길이 트

여 있어서 需要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軍에서는 陸軍의 境遇 한 2年前까지 速記主特技라는 것이 있었다. 速記主特技를 가진 사람을 志願制로 뽑았는데 速記가 쓰이는 分野에 비해서 特技所有者가 少數이기 때문에 速記主特技를 없애버리고 副官制로 統合을 시켰다. 그나마 쓰고 있던 速記士들도 점점 쓰지않게 된 것이다. 協會에서는 國防部나 陸軍本部 充員科에 必要性을 認識시켜 主特技를 살릴 수 있는 方案이 서야 되겠다.

宗教界에서는 지금 純福音中央教會가 速記士를 採用해서 說教集 등을 낸다. 이 방면에도 우리의 努力에 따라서 永樂教會라든가 연동教會같은 데를 需要處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金融機關으로는 金融通貨委員會만이 國會를 除外한 唯一의 速記法에 의한 會議錄을 作成하는 곳이다. 나머지 金融機關에서는 外部速記士에 의해서 株主總會나 臨時總會의 會議錄을 作成하고 있다. 保險會社에서는 전연 쓰고 있지 않다.

以上 專門速記인 職場速記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非專門速記에 있어서는 어떤가?

지금 秘書로 速記士를 쓰고 있는 機關이 몇이나 있을까? 거의가 速記를 전혀 모르는 秘書들로서 打字나 치는 程度이다.

梨花女大에 秘書學科가 생겨서 혹시나 期待를 갖게 된다.

參考로 經營者가 速記에 대한 認識을 하고 있어서 作業上 보탬이 되게 하는 會社도 있다. 「大英百科辭典」에서는 韓國會社에서 내고 있는 月報나 韓國손님이 와서 商談을 할 때 速記했다가 營業上 도움

을 기한다는 뜻에서 敎育機關에 委託을 시킨다. 우리가 PR과 啓蒙을 하면 다른 會社에서도 이런 速記의 利用價値를 알게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 協會로써 가장 關心이 많고 또 複雜한 것이 時間制速記(請託速記)이다. 이것은 既成市場과 開拓市場으로 나눌 수 있다.

速記士를 아직 써보지 않은 때에는 協定料금이 時間當 8千원이라고 하면 값싸 놀라 아예 速記를 하려들지 않는다. 그

러므로 開拓을 해 놓은 곳에는 協定料金を 「덤핑」하는 일이 없어야겠으나 새로 開拓하는 곳에는 일마끔 「서비스」할 수 있는 方便도 協會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速記를 專門分野別로 分業化시켜서 各各 그 方面의 專門知識을 가진 速記士들이 擔當하게 하는 것도 速記士의 公信力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協會研究委員長>

(消) (息)

○ 舊臘 12月 15日부터 實施해오던 東亞日報 記者들에 대한 速記講習은 今年 2月 20日 많은 成果를 올리고 終講했다. 그동안 言論人을 위한 協會事業의 1部를 遂行한 講師 孫弘基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 昇進

지난 2月 1日자로 國會速記第1係長 速記事務官 金鎮基氏가 速記書記官으로 昇進 速記課 速記擔當官으로 補職되었으며

速記第3係長이었던 行政事務官 安仁榮(本協會 理事長)氏가 行政書記官으로 昇進 委員局 資料編纂課 史料擔當官으로 轉補되었다.

○ 昇進

지난 3月 5日 시행한 國會事務處 事務官昇進試驗에 있어 速記課의 孫弘基氏와 申世華氏가 速記事務官으로 榮譽의 合格을 걸우었다.

따라서 3月 11日자로 速記係長 異動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速記第1係長	鄭	源	道
" 第2係長	李	東	一
" 第3係長	金	永	善
" 第4係長	崔	錫	模
" 第5係長	孫	弘	基
" 第6係長	申	世	華

○ 受賞

1971年 1月 4日 國會事務處 始務式에서 다음 會員이 模範公務員 表彰을 받았다.

事務總長賞	安	仁	榮 (速記第3係長)
優等賞	尹	玉	姬 (速記第3係)

○ 感謝牌 및 感謝狀 수여

1971年 2月 9日 協會에서는 第3代理事長 鄭源道氏와 第4代理事長 李東一氏에게 그 理事長 在任中の 功績을 높이 인정 各各 感謝牌를 수여하였으며 速記展示會 作品製作委員(金鍾壽 蔡康熙 朴昞植 金敬萬 金善弼)에게 感謝狀과 紀念品을 수여하였다.

無料速記講習의
現況과 그 改善點

梁 源 龍

1. 意 義

協會 年例事業의 하나로서 無料講習을 開催하는 意義는 速記의 大衆化로서 「스피드」 時代의 筆記生活에 適應시키고 나아가 祖國近代化作業의 一翼을 遂行하고자 함이다.



名의 受講入員이 動員되었으 며 學生을 위한 學校講習으로 는 몇個大學과 몇個 高等學校 에서 계속 實施되고 있고 言論 人을 위한 강습은 1次的으로 國會出入記者團에 대한 講習을

끝냈고 東亞日報記者들에 대한 講習은 尙 今 계속되고 있다.

다만 ④⑤⑥⑦項에 대한 講習은 諸般與 件上 實行치 못하고 있으나 이는 계속 推 進되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로 7회에 걸친 一般人을 위한 短期 講習實績을 보면

2. 對 象

따라서 이 講習의 效率的인 成果를 見 우기 위해서 그 講習對象으로 다음과 같 이 分類한다.

- ① 一般社會人을 위한 一般公開短期講習
- ② 學生을 위한 學校講習
- ③ 言論人을 위한 講習
- ④ 各種 官 民 企業體 秘書職 및 記錄擔 當者를 위한 講習
- ⑤ 法院 檢察 書記를 위한 講習
- ⑥ 各級公務員을 위한 講習
- ⑦ 軍速記兵을 위한 講習

回數	受講生	修了生	實 績
1	514名	224名	46%
2	450	218	48
3	420	228	54
4	451	242	54
5	854	540	64
6	745	324	44
7	570	305	54

3. 實 績

一般社會人을 위한 一般公開短期講習이 7회에 걸쳐 서울과 釜山에서 開催 約5000

1回부터 7回까지 平均 52%의 修了成績 은 改善點에서 論議되어야 겠다.

다음 第 1回 受講生에 대한 「앙케트」 應答내용은 다음과 같다.

○ 速記를 배우게 된 動機는?

「速記를 알기 위해서」53.6% 「筆記도움을 위해서」27.2% 「速記士가 되기 위해서」4% 「호기심에서」15.2% 따라서 速記講習은 未開拓分野이고 계속 PR이 필요하다.

○ 3週間の 講習期間은?

「길다」0.5% 「짧다」61.1% 「적당하다」33.4%로서 더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할 문제가 있다.

○ 難易에 대해서?

「할만하다」18% 「쉽다」4% 「어렵다」77.3% 따라서 大衆普及의 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指導方法和 敎案內容의 改善이 필요하다.

○ 速記의 實用性은?

「도움이 되겠다」84.8% 「도움이 안되겠다」22.7% 「모르겠다」12.5% 대다수가 도움이 된다고 하므로 協會가 所期한 講習의 意義는 達成되었다고 본다.

또한 第 1回講習 受講生 224명중 41%인 92명이 女子로서 參與도가 낮았으나 第 7回때는 570명중 53%인 300명이 女子로서 그 進出이 현저해졌고 앞으로도 女性의 參與가 늘어나리라 본다.

4. 改善點

가. 一般短期講習의 改善點 ① 현재 3週間の 短期講習에 專門職敎案을 쓰는 관계로 無理가 있다. 따라서 受講生이 짧은 시간에 쉽게 익혀서 筆記生活에 利用할 수 있도록 短期講習用 敎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② 受講者가 當日 배운 期本文字를 應用할 수 있는 特字나 略字를 使用頻度率에 따라서 주입한다. 또한 그날 배운것을

그날 消化할 수 있도록 科學的으로 配定한다.

③ 一般會話에서 많이 使用되는 動辭의 略字를 重點的으로 다룬다.

④ 熟達方法으로 매일 進度過程을 속제 형식으로 계속 練習 復習하게 한다.

⑤ 日常生活化시키는 方法으로 「노트」나 日記帳에 使用할 수 있게 指導한다.

나. 學校講習의 改善點 ① 大學의 경우 學期初는 취미를 가지고 잘 배우나 어터움을 느끼면 도중 脫落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學校當局의 協助를 얻어 學點制를 實施해야 實效를 거둘 수 있다.

高校의 경우 特別活動時間을 排除 科目으로 採擇되어야 하겠다.

② 講師自身이 노련하고 訓練된 講習생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 이는 講師選定에서 생각할 문제이다.

다. 言論界講習의 改善點

記者들이 言論活動에서 實效를 거둘수 있는 敎案作成과 講習期間에 대한 研究가 필요하다.

라. 講習方法의 改善點

현재까지 速記講習을 私設學院과 學校를 使用했으나 앞으로는 協會가 年輪을 쌓아감에 따라 講習方法의 多樣化를 시도해야겠다.

① 全國巡廻講習을 한다. 이는 協會와 速記人이 總動員이 되어 全國에 「붐」을 일으킨다. 현재까지는 거의 서울에만 置重하던 것을 앞으로는 重要都市를 年 1회라도 巡廻해서 速記普及을 한다.

② 通信講義錄을 념으로서 全國 어디에서든지 공부할 수 있게 한다.

③ TV와 「라디오」를 통한 視聽覺강습方法도 併行한다. <協會宣傳部長>

나의 速記 半生記

指導委員 金星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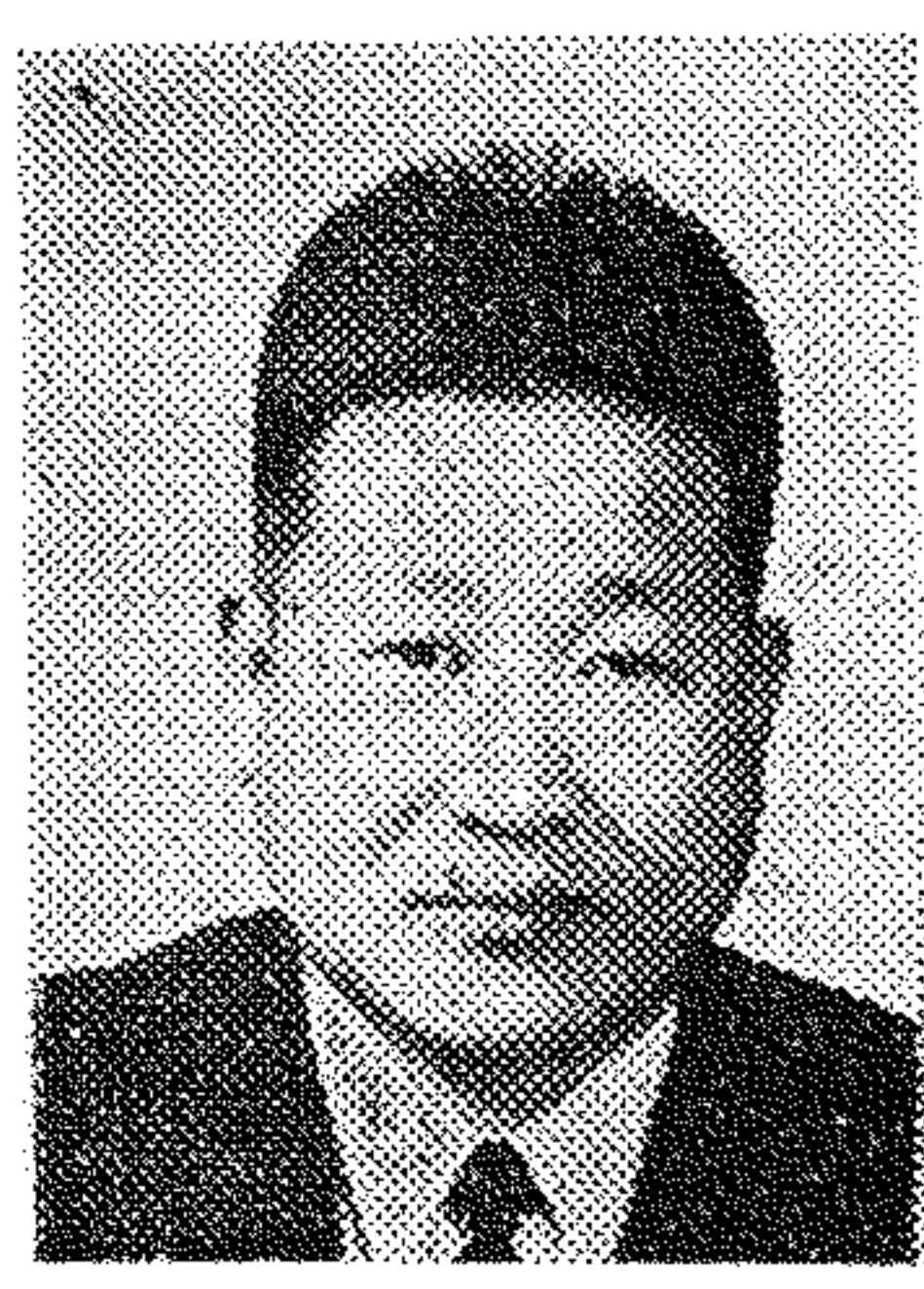
속기 반생기라 제하고 보니 이제 30여 년 이 세상에 살면 일생이 다 될것 같다. 여기에 나의 속기생활을 기술하는데 있어 일제말로부터 해방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리 빛나지도 못하는 나의 속기생활을 소개하는것으로 하겠다.

해방과 나

일제 말기부터 나는 일본말 속기 기자로 동맹통신사에 근무 하는 형(고려속기 창안자 金天漢)의 덕분으로 국민학교 재학시부터 속기가 이런것이다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 일정부 일본어 기본문자 속기는 작난삼아 알아 두었고 기본문자로 써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해방이 되어 우리말을 다시 되찾게 됨으로 나의 형은 매일 같이 도서관에 다니면서 근 1년간에 걸쳐 연구하여 우리말 속기를 창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것으로 기억된다 같이 기거하면서 속기연구과정을 어깨넘어로 보아오던 나는 서당 개 3년이면 뉘를 읊는다는 격으로 한글 속기(고려속기)를 알게 될 뿐아니라 제법 창안과정에도 의견을 진술 개입하기도 하였다. 이리 하여 일제말기부터 해방초기에 이르기 까지 사이에 나는 속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시절의 속기

중 3때부터 학교에서 노트 필기에 속기를 이용하였다 당시(해방 초기)에는 오늘과 같은 교과서나 참고서적이 별로 없어서 선생님들은



가이 설명의 골자를 읽어주고 노트 필기를 시키는 교수법이 많았던 관계로 누구나 필기에 골치를 앓았다 나는 그때마다 제법 웃짤해지는 기분으로 필기를 속기로 하니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의 읽어주는 것이 빠르다고 야단들이었지만 나는 여유만만 하게 두번 세번 연습겸하여 필기하였다. 그리고 옆의 학생이 나도 좀 알자하여 서너명 학생에게 개인교수까지? 한 일이 생각난다.

첫 속기로 수령

내가 중학교 6학년 졸업반때의 일이다 (당시는 중고별없이 중학 6년제였음) 교장선생님께서 「김군이 속기술이 있다는

애기를 진작 부터 들어왔는데 오늘 회의에 어디 한번 나가서 써보지……」하기에 자신은 없었지만 「네—」하고 대답은 했는데 회의장에 들어가 좌정하고 속기를 시작할때까지는 몹시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를수가 없었다.

당시 회의장 용산중학교 회의실에는 많은 중학교 교장님들이 모여 一民主義 교육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의 속기였다 처음으로 결린작업이 평탄한 연설이나 회의도 아닌 학술토론회를 연상케하는 free talking 속기였기에 상식이 미치지 않았던 나는 원고정리에 무질애를먹었다. 그러나 이력 저력 정리하여 제출하니 액수는 기억에 희미하나 졸업반 당시의 마지막 수업료와 졸업비용에 충당되었다. 이리해서 나의 처녀속기로는 수형되었다. 당시 잊혀지지 않는 것은 회의증음로수 다과회가 결합여졌는데 음로수는 거의 애플종류였는데 내 옆에 있던 어느 학교 교장님이 속기하느라 수고하는 선생도 한잔 하라고 권하는데 혼이 나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교무실로 도망와서 기다리던 생각이 나서 지금도 고소를 금할수 없다.

..... 학생 겸 선생

중학교 졸업반 때부터 형이 개설하고 있던 고려속기학원에 나가 학생들과 같이 연습도 하고 모르는것을 알려주기도 하여 학원생활을 하였다 처음에는 서울효창동과 을지로 3가에서 야학으로 학원에 나갔었다. 이런 학원 속기 전학시절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6.25동란으로 모두 무산되어 학원도 폐쇄되었다.

..... 6.25와 나

6.25동란으로 안정됨이 없이 고향으로 전전하다가 9.28수복 직후 서울에 상경친지의 소개로 모기관의 속기사로 응시 합격되어 속기사 직업을 갖게 되어 후방의 속기사요원으로 난중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행이랄까 불행이랄까 징집이나 국민병에서 면제 보류되어 일선에 종군할 기회를 갖지못한채 오늘에 이르렀다 (물론 징집 연령은 넘었지만) 속기사로서의 직업을 처음으로 가졌기때문에 모든 짐무가 어색했지만 회의속기나 훈령속기 좌담속기등 바쁜가운데서 수년간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이때 1.4후퇴시 남하대구에까지 피난했다가 3.16수복후 서울에 재수복케 되었다.

..... 속기학원 재 개설

1953년에야 6.25로 폐쇄됐던 속기학원을 서울에서도 다시 개설하였다(피난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고려속기학원을 속개하고 있었음) 직접 본인이 야간반을 중심으로 남녀학생을 모집 후배양성에 힘쓰기를 시작하여 처음에 서울 서대문(교남동)에 개설한후 을지로 2가, 삼선교, 종로구 관철동등으로 전전하면서 약 7년간 계속하여 꽤 많은 후배를 양성한바 있다. 이때에 배출된 우수한 분들이 현재도 국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에 주임속기사로 활약하고 있다.

속기학원 경영시절에 웃지못할 일이 하나 있어 소개하면 심선교에 자리잡고 있을때의 일이다. 하루는 성북경찰서 사찰계근무 형사라 하면서 무엇 문의 할것이 있다 하여 본인에게 찾아 왔다 알고보니

바로 고려속기학원 문전 앞길에서 수상한 압호가 쓰인 노트(속기원고)를 발견했는데 수상하다면서 조사할것이 있으니까 잠시 서에 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옥신 각신 하다가 성북서 사찰제에 까지가서 속기에 대한 해명을 하였더니 자기들이 무식한 소치였다면서 사과를 하기에 나는 사북경찰관은 속기법을 배워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광고를 하여 직업의식을 잃지 않았다.

고등학교 속기강사

1953년부터 4년간 서울 선린상업고등학교 속기학 강사로 있었다. 正科로 하여 상업부기 상업수학 속기학이 정과수업으로 학년별 주당 2시간씩 2개년간 이수토록하였으나 학교에서 과해지는것 만으로는 부족하여 유능한 학생들은 별도로 학원이나 개인교수로서 보충되었다.

그후 1957년부터는 서울 창덕여고에서 특별활동부 속기반을 책임지고 교수한바 있었다. 이때 속기반에 적을 두었던 학생이 그후 국회 속기사로 채용되었다.(김희자. 이만자)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의 생태를 이 기간을 통하여 확실히 과학케 되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하여 고등학교에 나가게 된것이 결국 현재의 직업으로 굳혀지게 된 동기가 된듯하다.

선린상고 재직시에는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복교한 학생들로 나와 동년배에 있었던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처음엔 얼떨떨하였으나 곧 익숙해 졌다. 그래 요즘에도 가끔 차중에서나 길가에서 「선생님!」하고 반가이 맞아주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엔 거의다 실업가 아니면 회사의 중역들이 된 당시의 학생들을 만나게 될

때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없는 학생들이 사회인이 된 오늘에 「제가 언제 선린상고를 나왔읍니다」할때에는 교직자의 회열을 맛보기도 한다. 그후 여학교에 계속하여 근무중인데도 여자들(졸업후)의 인사를 별로 받아보지 못함을 보면 아마 여자에게 인덕이 없는 탓인지--- 몰인정한 여자들의 심성인지는 몰라도 좀처럼 여자들에게서는 인사를 받아 보지 못하였다.

대학의 속기강사

1954년부터 약 3년간 속명여자 대학교 정경대학에서 여대생들에 속기학특강을 한바 있다 속기법을 교수하는데 있어 제일 힘들게 지낸것이 대학시절이다. 학점제로 1개년간 학기별로 2학점을 부여했기에 꼭 이수는 해야하고 시험은 봐야했기에 시험을 보면 수준에 미달되는것이 상례 같아서 몇번씩 추가시험을 보기도 하고 결석으로 부진한 학생은 별도로 야간에 학원에 와서 과외수강을 하여 겨우 학점을 얻어 교과를 이수하기도 하였다. 대학강사시절에 느낀것은 대학생들의 잘못된 지성인? 에게는 속기라는 것이 적성에 맞지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 속기학과를 폐쇄해줄것을 학교당국에 요구하여 폐과하고 말았다. 정말 여대생들이 쓰지않고 그리는것인데 그 그리는 것조차 몹시 어려워 하는 그 끝은 정말 끝불견이기에 가슴이 아팠다.

직업학교 속기강사

서울시립 성인학교로 발족된것이 이제는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학교로 개칭되어 16년에 이르고 있어 15년간 이학교의 속기과 담당강사로 수업기간 3개월, 또는 6개월의 속성과정을 맡아서 교수 하였다.

이 학교는 취학자들의 연령, 학력, 등이 일정치 않아 15세로 부터 30세까지의 사람들이 학력으로는 국졸부터 대학졸업생까지의 분포로 되어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사회교육과)에서 문교부의 후원으로 사회교육비를 지출하면서 국가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기술교육의 하나이다. 여기에서의 애로는 지식수준이나 연령의 차이등이 극심하므로 수업상 우열의 차이가 너무나 심하여서 수업진행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큰 효과를 올리지는 못하였다.

.....
앞으로의 계획

나의 속기 반생기는 실무속기보다는 속기교육에 이바지 하였다고 볼수있다. 요즘은 속기에 대하여서는 휴식상태라 할수 있으나 항상 속기를 잊고 살지는 못한다. 가까운 장래에 속기 교육기관을 설립코자 하는 욕심과 나날이 고속화 되어가는 말의 속도에 맞추어 속기법개량에도 힘을 기우릴 예정으로 있다 「나」라는 인간은 아마도 「속기」하고는 불가분의 것이 되고 만 것 같다.

〈서울弘益女子高等學校 教師〉

學 院 案 內

☆ 創立24周年!

- ◇ 우리나라 唯一의 速記士私設養成所
- ◇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
한글速記科

- 1. 本科.....4個月
- 1. 研修科.....1年
- 1. 資格.....高卒以上

.....
英文速記科

- 1. 本科.....3個月
- 1. 研修科.....1年
- 1. 資格.....高卒以上

.....
修了後

國會, 各官公署, 各言論機關, 各軍速記兵, 外國人商社, 留學時的筆記및 알마이트等 高級就職으로 社會 進出 容易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 (73) 1266

밀린 이야기들

국회속기사 양성소 (제3기 졸업)

金 仙 玉

其 1

속기가 어디에 이용되는지조차 까마득하게 모르던날, 고등학교 교복을 벗자마자 「뽀펜」의 날을 지내버릴뻔 하던 날 학교생활의 연장같은 형태의 이 집단의 한 대열에 서게된 것.

그것만으로도 난, 무턱대고 좋았던거다 아무런 목적의식없이 들어선 첫 계단.

「의회속기의 원리도」

其 2

신기한것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움만 알고, 익히는 괴로움이 얼마나 더 크다는걸 전혀 몰랐던 난, 그저 새롭다는 신기하다는, 그런 어린이같은 마음때문에 그저 모든게 흥미로웠던 거다.

기본문자의 4mm 8mm 15mm

정직하질 않은 때문인지 내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자의 기준이 남의것보다 후하였는지 내 문자는 기준을 훨씬 넘는 크기였지만, 그런대로 측정할 수 있는 눈을 길렀다는 두번째 계단 「기본문자」

其 3

철저하게도 「에고이스트」인 난, 처음 사람들의 관심이 나 보다는 그네에게 더 쏠린것 같은 착각과 또 형편없이 미운 모



양인 내 문자가 그네들 경쟁의 대상에서 완전히 소외된듯한 느낌에서 또 남에게 진다는 패배감같은 묘한 감정에서 생긴 묘한 오기가 내가 기를 쓰게된 큰 「모멘트」가 되었었나 보다.

외우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써서 익힌다는 것은 참 미련한 방법인 줄만 알았던 내가 미련해지기 시작한건 7월이 거의 마지막 가던 그날부터였나보다.

(이 얘기는, 혼자만이 숨겨두었던 독백)

其 4

차라리 우리생애(? 조금 거창하다)에서 1년은 손익계산서에 넣지말자고 옆자리 경아랑 마구 떠들어대며 걸던날, 우리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사람이 1년에 한가지씩 좋은것을 배우면 우리 죽을때까진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배울 수 있을까하고.....

그래서 속기를 출발로 1년은 속기에만 전념을 하자고..... 한참을 떠들어 댔다.

미련해 지기로 했다. 그리고 바보가 되어 버리기로.....

내 모든 사색과 생활의 일부마저도, 일요일이 바쁘다고 만나던 회야 숙이도 모두 잊어버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안부인사조차 생략해 버리고 그것에만 오로지 집념하기로

마음먹었다.

作心三日이라고…….

글쎄, 하루는 이별의 기념(?)으로 그
네와…… 하루는 출발의 기념(?)으로 그
네와…… 또 하루는 특별히 예의라는 변명
으로 그네와…… 어떤날은 화풀이로…….

대개가 그렇게 보내버린 날들이었지만
여하튼 마음먹을때만은 진지하고 거창했
었던 거다.

其 5

점은제복의 율타리에 온갖 나의 것들을
뚝어두려던 내 진지한 염원을 알고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의아스럽게들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나대로의 변명은 먼 훗날
이면 알수있으리라는 한 마디.

열심히 공부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엘 무
난히 거치고, 그리곤 시집이나 가야겠다
는 아주 평범한 꿈을 지닌 옆자리 가시내
들이 난 무척 좋았고 또 나도 그런 평범
한 꿈을 닮음하려 애쓴다.

고등학교때 사회란 그저 추잡하고 복잡
하고 불순한 것, 그런 잡동사니들의 복합
체인 줄로만 알았다. 그 색안경은 완전히
벗어버리진 못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가부다 행여 내 집념이 흐트러져 버
릴까 염려스러워 모든걸 팽개쳐 버리던
내가 지금은 사회로 발돋움하는 準사회란
이 집단, 어느곳보다도 더 치열한 이 전
투장의 한 구성원이 되어 버린거다.

其 6

속기를 조금씩 알면서부터의 가장 큰 내
면의 변화, 차라리 성격개조라 이름하였다.

너무도 내성적이어서 남의 앞에서 소신
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본의 아니게 가끔

손해를 보길 잘하던 내가 지금은 아주 말
이 많고 극성스런 가시내로 탈바꿈해 버
린건 순전히 속기탓이었을까…….

귀찮을 정도로 선배님들에게 지식을 훔
치려 했고 경험을 배우려 했다.

무턱대고 모방도 하고, 아무런 염치도
없이 극성스럽게 물음도하고……,

때문에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덕을 아마
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았는지도 모른다.

다만, 의혹과 불신을 받고 싶지않은 지
금 마음이다.

其 7

대화의 범위는 항상 한정되어있고 정서
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묘한 분위기지만 그
래도 정들어버린 교실풍경

차라리 지하실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계절이 바뀌는지, 언제 밤이갈리는지
해가 따스운지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여전이라는게…….

其 8

속기를 모르는(문의한?) 주변의 사람
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사법고시에 합격하
고도 남을거라고들 하지만 날이갈수록 모
르는게 더 많아진다는 사실은 이와같은 과
정을 거쳐간 사람들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리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어떤면
으로는 모르면 모른만큼 그게 더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게 성립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속기를 더 가까이 할
수록 그것과 정비례하여 후회와 불만이
더 늘어난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까
보다. 따라서 후회와 불만의 과소가 성적
을 가늠하는 척도라면…….

과연 나의 후회와 불만은 얼마만큼이나

될까. 그러나 서투른 후회는 결코 많으리
라는 어설픈 내 독백이 있다.

其 9

한해는 영접속에서 볼 때 순간이라지만
정말 순간처럼 지나버린 속기와의 한해바
퀴 언제나 이렇게 빨리 지나 간다면 우리
는 금방 백발이 되어버릴거다.

아마도 속기엔 마술을 수반한 묘한 매
력이 숨어있나 보다. 후회와 번민을 거듭
하면서도 끝내 뿌리치질 못하고 졸업이란
이 시점에까지 도달했으니

지금 생각하니 약간 씩스럽기도 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울고불고하던 어제가
—그러나 1주일후면 1년동안 수련의 고생
증명서(?)를 받는다.

其 마지막 얘기

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어설픈 우

리들을 1년내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
고 격려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아무런 보답도 없이 늘 와서 불
러주고 경험을 얘기해 주던 선배님들 우
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보답은 좋은 열
매를 수확하는건데…….

길고짧은건 앞으로 있을 채용시험때의
평가뿐…….

졸업은 출발의 예고

아무런 후회를 앓으려 한다.

보통사람들은 알지못하는 좋은 기술을
터득하였다는 자랑다음과

1분에 300자 이상을 쓸수있다는 공지만
으로 족하면 되니까, 1년동안 精誠의 댓가
가 보람으로 나타나기를 염원한다.

無에서 有로

지금 내가 얻은것은 두개

「인내」와 「의회식속기」라는 것.

<1971년 2월>

國會速記士養成所소식

3期生卒業——지난 2月 13日 卒業試驗을 通過한 자랑스러운 新銳 速記士 33名이
卒業했다. 당초 100名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入所, 1年間の 고된 行軍끝에 54
名이 中途脫落 마지막까지 力走해온 46名中 卒業시험에서 또 13名이 脫落 結
局 33名(男 17名 女 16名)의 結實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榮譽의 首席卒業者는 金仙玉嬢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國會速記士採用試驗이 4月중에 있을 예정이다.

4期生入所——2月 21日 入所試驗, 628名이 應試 1次 2次를 通過한 100名(男 70
名 女 30名)이 合格, 3月 6日 入所式을 가졌다.

우리나라 國會速記制度

改革을 위한 見解

註：이 原稿는 國會運營研究會刊 <研究論叢> 第4輯에 掲載된 國會事務處 機構에 관한 研究分科會의 研究發表文인 바 그 內容이 國會速記士에게 關聯 되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 여기에 그 論文을 拔萃 轉載합니다.

가. 國會速記制度

오늘날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團體 意思를 決定하는 方法으로서 會議形式을 取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會議의 記錄도 또한 重要한 意義를 가지게 되었다.

會議錄 또는 議事錄이라 하면 이때까지는 거의 大部分이 國會와 關聯시켜 생각되었던 것이지만 最近에는 다른 公共團體의 議事に 있어서도 會議錄을 作成하는 것이 當然視되어 國際機關이나 學界의 研究機關의 會議 勞動組合의 會議 株主總會 등에서 會議錄을 作成하게 되고 이러한 傾向은 今後에도 더욱더 助長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會議錄이라하면 亦是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國會의 會議錄이 가장 代表的이다. 따라서 會議錄에 관한 國會의 先例가 會議錄全般에 걸친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되고 있다.

國會의 會議錄은 國會法第64條와 第108條의 規定에 依해서 作成된다. 그러나 第4代 國會까지의 國會의 記錄은 會議錄과 速記錄으로 나누어 作成된바 있다. 即 會議錄은 議決의 結果에 重點을 두고 作成

한 會議의 記錄으로서 議事의 內容은 要點만을 記載하였고 速記錄은 速記法에 依하여 議事의 內容을 發言된 그대로 記錄한 것이다. 그러나 第5代부터는 이들을 結合해서 會議錄만을 作成하게 했다. 따라서 會議錄은 議事의 內容을 速記法에 依해서 記錄하는 同時에 議事日程報告事項 案件等 會議에 關한 모든 事項을 掲載케 된 것이다.

이와같이 會議錄이란 會議의 記錄이나 即 會議의 經過와 結果를 表記한 것이다. 그렇다면 會議錄이란 어떤 性質의 것일까 우선 會議錄이란 그 會議에 있어서의 「事實의 記錄」이라고 말할 수 있다. 事實의 記錄이란 두가지 뜻을 가진다.

첫째로 事實이란 것에 있어서 그것을 記錄한 것이 會議錄이란 뜻이 되고 記錄한 것이있기 때문에 事實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記錄이 事實을 낳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둘째로 會議錄은 會議에 있어서의 事實의 解說과도 다르며 그렇다고 해서 事實에 對한 意見도 아니다. 事實 그대로의

記錄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萬一事實에 符合하지 아니하는 要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이미 會議錄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게 된다.

옛부터 「會議錄은 神聖한 것」이라고 하여 國王의 權威로서도 作爲할 수 없다고 傳하여 지고 있는 理由는 이 會議錄이 가지는 事實에 符合하는 眞實性 때문일 것이다.

會議錄의 信憑性도 여기에 根據를 두고 있다. 會議錄은 會議에 關한 爭訟이 있을 때에는 有力한 證據가 되는 것이다.

國會法第108條第 2項에 會議錄은 速記法에 依하여 作成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것은 速記士없이 錄音機만 會議場에 裝置해서 나중에 速記士가 錄音에 依하여 速記한다는 것은 正當한 速記法에 依한 速記가 아니라고 解釋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會議錄의 現在的 또는 同時的 性格을 나타내며 國會의 會議錄이 會議때마다 第몇號로 作成되는 것도 이와같은 생각때문이라고 간주된다.

速記의 發明에 依해서 會議錄問題는 結局 速記의 問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國會에서 速記錄이 實用된지도 어언 20餘年 그間 6.25動亂과 4.19, 5.16等の 政治的 受難속에서 一時나마 速記界의 發展이 停滯되었던 때도 있었으나 그 間의 研究와 教育에 依하여 初期實用段階에 比하면 그래도 長足の 發展을 期하여 왔다고 본다.

그러나 一世紀에 가까운 오랜 歷史와 傳統을 지닌 日本의 議會記錄業務制度에 比하면 우리 國會의 速記歷史나 社會的 認識度는 너무나 不滿스러운 것이 많다.

오늘날 速記는 漸漸 隆盛一路에 있다. 速記士 養成機關도 늘어나고 學校教育에

速記學이 考慮될 程度에 있으며 그리하여 速記需要는 急激히 增加되고 있다. 「테이프레코더」의 出現도 結局 速記需要를 擴大시켜 주는 機能外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情況에 비추어 볼 때 立法府의 한 議事補助機關인 國會의 速記制度가 얼마나 重要한가를 再認識하게 되며 이 時點에서 國會 速記의 制度的面에 對한 再檢討가 不可避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 우리나라 國會速記制度改革을 爲한 見解

議會民主主義는 廣義의 國民討論場이라고 할 때 그 討論場에서 論議되는 全般的인 過程을 記錄하고 保存하는 速記業務란 實로 近代議會政治史에 있어 무거운 內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重要한 速記業務를 完遂함에 있어서는 그 基本要諦가 되는 正確과 迅速을 如何히 運營管理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國會가 記錄事務의 機構를 擴張하지 않는 것은 國家豫算을 節約한다는 長點은 있겠으나 速記라는 特殊한 技術을 要하는 職務의 性格上 또는 速記로부터 印刷配付까지의 複雜한 過程面에 있어 보다 正確을 期하고 보다 迅速을 期하기 爲해서는 記錄部와 같은 機構로서 擴張이 要望된다.

또한 速記士의 速記執務過程은 個別的으로 한組가 10分이나 20分의 짧은 時間 동안 會議에 參席 速記하는 것에 그치지 때문에 그 會議의 全體的 흐름이나 論議中인 案件의 內容을 잘 把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發言者가 모두 正確한 發言으로 세련된 言語만을 使用하는 것이 아니고 地方色이 짙은 各種方言 不分明한 發言 흥분한 熱辨 外來語의 驅

使純漢文式文章의 引用 特殊部門의 專門 述語 等等 各樣各態의 發言이 많으므로 多少의 誤聽이나 誤記를 免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不完全을 補完하기 爲해서 오랜 速記實務經驗者로 하여금 速記監督官이 되게하여 보다 正確한 會議錄을 發刊함으로써 速記業務의 信賴度와 會議錄의 公信力을 높이기 爲한 制度가 바로 速記監督官制度인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誤聽이나 誤記를 하였을 경우 이의 訂正이란 記錄者 및 校正員의 常識이나 識見에 依하여 어느 程度 바로 잡을 수 있는 形便이나 日本國과 같이 速記監督官制度를 둔다면 速記士로서의 오랜 實務經驗과 또 直接會議場에 參席 一貫된 會議進行을 傍聽하여 「메모」한 것을 土台로 速記士의 誤聽, 誤記等은 自信있게 訂正하고 補完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되므로 우리나라 國會에 서도 이 制度의 採擇이 要望되는 것이다.

그리고 速記業務中에는 몇가지 記錄하기 어려운 點이 있다. 그것은 數字 朗讀이나 法律條文朗讀, 專門用語 特히 科學用語나 人名 地名, 地方語, 外來語, 新型單語등인데 記錄하기에도 힘드는데다가 發言者自身이 誤讀하는 경우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때로는 新型單語나 專門用語

같은 것은 辭典에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우리 國會 速記士들은 일일이 發言者에게 問議하고 또 發言者가 不在한 때에는 그의 宿所에 까지 訪問하여 確認해 오는 일 非--非再하나 日本國會에서는 兩院 共히 記錄部 밑에 調査係를 두어 各種統計資料 專門用語 新型單語 審議되는 法律資料, 人名, 地名等 모든 分野의 資料를 蒐集하여 速記士들에게 提供케하여 正確을 期하고 있다. 이러한 것도 記錄業務의 萬全을 圖謀하는데에 必要 不可缺한 制度라 하겠다.

끝으로 速記士들의 速記機能은 오랜 經驗을 通해서 熟達되는 面도 있지만 反面에 隋性으로 因하여 技術의 沈滯 또는 低下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日本國에 있어서는 所要年數에 依해서 昇進할 資格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一定한 技術水準에 到達되어 있지 않으면 昇進시키지 아니하는 嚴格한 試驗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이는 速記職이라고 하는 別個의 職種을 듬이 없이 一般職公務員의 人事摘用을 施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多少複雜한 感은 없지 않으나 速記士의 服務意慾을 鼓吹하고 技術向上을 圖謀하기 爲해서는 亦是 必要한 制度라 하겠다.

採用試驗案內

國會 事務處에서는 國會速記士公開採用試驗을 施行한다. 試驗日字는 4月 15日이며 接受마감은 4月 13日까지로 되어있다. 試驗內容은 1次(速記實技) 2次(學科) 3次(面接)로 되어있고 合格者發表는 4月 25日 이다.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會 規

第1條 (目的) 이 會規는 大韓速記協會의 圓滑한 事務執行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事務執行) ①總會에서 決議된 事務執行은 理事會에서 處理하되 會長의 決裁를 받아야 한다.

②理事會에서 決議된 事務執行은 各部長이 處理하되 理事長의 決裁를 받아야 한다. 但 理事長은 決裁한 事項을 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3條 (本支部設置) 本會의 本部設置에 關하여는 總會 決議에 依하고 支部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執行하되 會長의 決裁를 받아야 한다.

第4條 (資格審査) 會員의 資格審査는 따로 資格審査規定에 依한다.

第5條 (總會召集) 總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召集日 7日前에 會員 各者에게 다음 事項을 通知하여야 한다.

- (1) 召集日時
- (2) 召集場所
- (3) 召集目的

第6條 (豫算編成) 豫算의 編成은 各部長이 提出하되 事業部長 經由 財政部長이 이를 綜合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條 (豫算執行) 豫算의 執行은 各部長

의 申請을 받아 財政部長이 處理하되 理事長의 決裁를 얻어야 한다.

第8條 (收入金) 豫算에 計上되지 아니한 本會의 收入金은 各部長이 財政部長에게 納入 하고 財政部長은 理事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9條 (事務監査) 監事는 會長의 命을 받거나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會長의 同意를 얻어 事務監査를 行할 수 있다. 監事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各부는 監査에 應하여야 한다.

第10條 (異見) 事務執行에 있어 各部門에 異見이 있을 때에는 理事長이 이를 決定하고 다음 召集되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1條 (委任狀) 地方會員이 總會出席을 委任하고자 할 때에는 別表第1號 양식의 委任狀을 會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12條 (任期) 各 任員의 任期는 選出된 定期總會로부터 加算하여 2年後의 定期總會까지로 한다. 但 創立總會에서 選出된 任員의 任期는 創立總會後 다음 定期總會까지를 1年으로 看做한다.

第13條 (名譽會員) 定款第5條 第1項의 名譽會員은 다음과 같이 細分한다.

- (1) 名譽會長
- (2) 顧 門
- (3) 指導委員

第14條 (業務分擔) 定款 第26條의 各部

署의 業務分擔은 다음과 같다.

1. 總務部

- (1) 印章 文書 什器 其他 財産處理에 관한 事項
- (2) 庶務 連絡에 관한 事項
- (3) 組織에 관한 事項
- (4) 他部에 屬하지 아니한 事項

2. 財政部

- (1) 豫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 (2) 會計處理에 관한 事項

3. 宣傳部

- (1) 宣傳에 관한 事項
- (2) 出版에 관한 事項

4. 事業部

- (1) 速記文化普及에 관한 事項
- (2) 會員 就業斡旋 및 福利增進에 관한 事項
- (3) 本會發展을 위한 事業의 實踐事項

5. 外國語部

- (1) 外國語速記에 관한 諸般事項

6. 研究委員會

- (1) 速記文化研究에 관한 事項

7. 資格審査委員會

- (1) 會員資格審査 및 懲戒에 관한 事項

(2) 技能檢定에 관한 事項

但 研究委員會와 資格審査에 관한 規定은 따로 定한다.

第15條 (加入法式) 定款 第5條3項에 規定된 本協會에 加入된 速記法式은 正會員을 가진 速記法式을 말한다.

第16條 (入會金) 定款 第7條에 規定된 會員의 入會金은 正會員 300원 이상 準會員 100원 이상으로 한다.

第17條 (會費) 會費는 正會員 月 100원으로 한다.

但 會長團과 速記法式創案者는 免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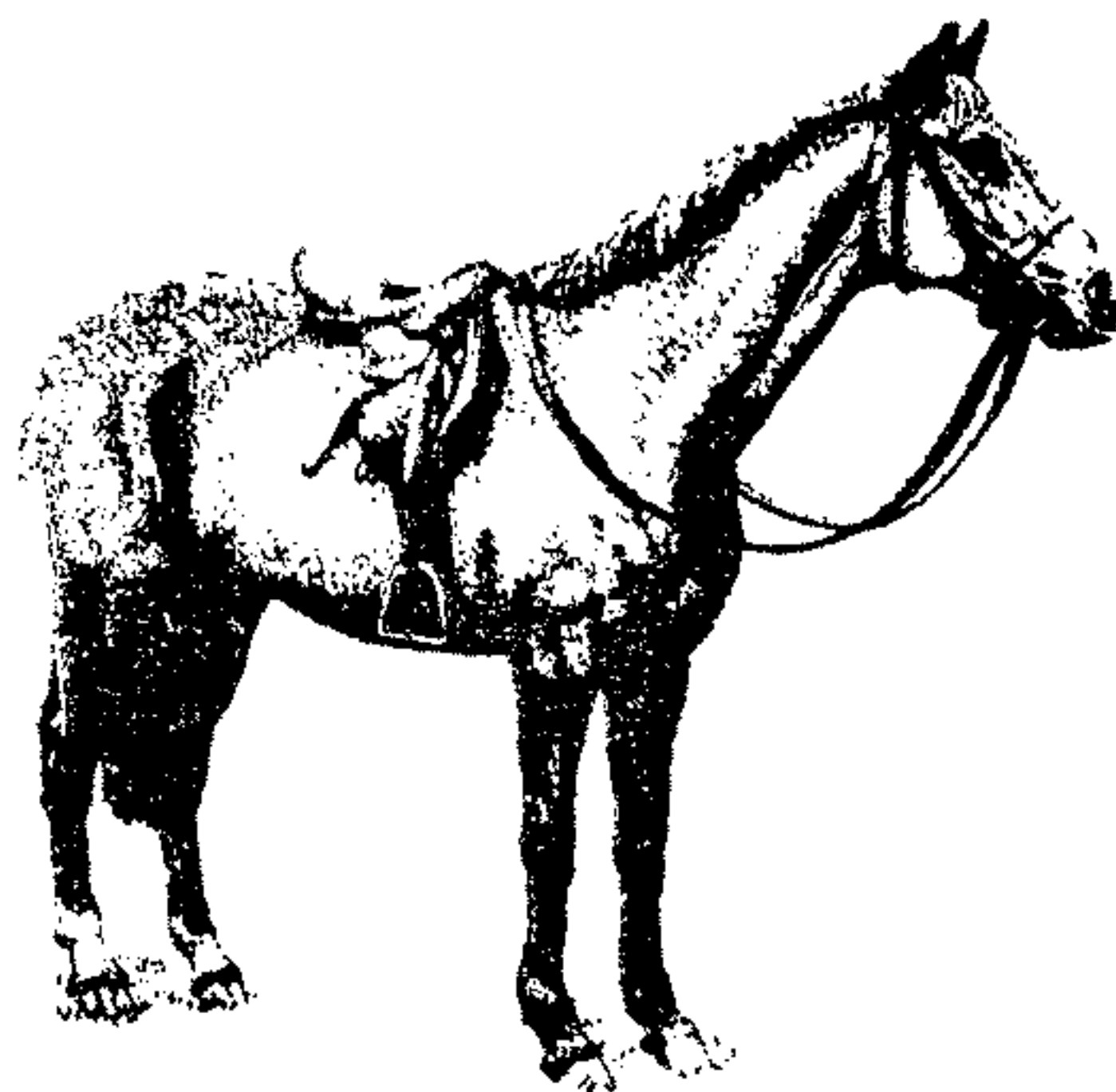
第18條 (納期) 入會金은 入會와 동시에 納入하고 會費는 每月末까지 納付하여야 한다.

第19條 (停權) 會費를 3月이상 滯納한 會員에 대하여는 會員으로서의 權利를 停止시킬 수 있다.

第20條 (手數料) 本會 事業部를 통한 委託速記에 있어서는 速記料 全額의 20%를 協會에 納付하여야 한다.

附 則

第1條 (効力) 이 會規는 理事會에서 議決한 날로부터 効力을 갖는다.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資格審査 및 技能檢定規定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規定은 會員의 資格 審査 및 懲戒에 관한 事項과 速記士資格 檢定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章 資格審査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第2條 (構成) 資格審査委員會(以下 委員會라한다)는 資格審査委員長 및 理事會에서 任命하는 8人以內的 委員으로 構成한다.

第3條 (召集) 委員會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또는 理事長이나 委員 $\frac{1}{3}$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에 委員長은 지체없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4條 (職務) 委員會에 幹事1名을 두어 委員會 會議錄作成 및 기타 委員會事務를 處理한다.

幹事는 委員中에서 互選하며 委員長有故時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5條 (會議) 委員會會議는 非公開를 原則으로 한다.

그러나 利害關係當事者는 參席할 수 있다.

第6條 (懲戒決議) 委員會는 資格審査 以外에 理事長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定

款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會員의 懲戒 事項을 審議決定하여 理事會에 報告한다
第7條 (議決定足數) 委員會의 決定은 在籍委員 $\frac{3}{2}$ 以上の 贊成으로 決議한다

第3章 會員의 資格審査 및 懲戒

第8條 (會員資格) 速記士資格 2級이상으로서 協會所定の 義務를 受諾한 者를 正會員으로 한다.

그러나 會長은 이 條項의 規制를 받지 않는다.

第9條 (會員의 懲戒 및 除名) 會員相互間의 不信을 招來하거나 協會의 名譽를 損傷케 한者 또는 會費를 3月以上 納付하지 않은 者는 3月以上の 停權 또는 除名할 수 있다.

第4章 速記士資格檢定

第10條 (資格檢定の 目的) 速記의 社會的 役割을 充分히 하게 하기 위하여 基準을 定하고 그 기준에 相應하는 能力을 認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1條 (檢定基準) 1級 내지 8級으로 定하고 內容은 別表에 의한다.

第12條 (檢定方法) 檢定試驗은 實技試驗을 原則으로 한다.

第13條 (公告) 試驗施行 20日前에 公告

하여 一般이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第14條 (試驗施行) 檢定試驗은 年 1回
以上 施行하여야 한다.

第15條 (資格決定) 各級에 있어서 合格
者는 正確度 95% 이상인 者로 한다 但
不合格者中 正確度 90% 이상인 者는 應
試級數의 次級으로 하며 8級은 90% 이
상인 者로 한다.

第16條 (其他事項) 試驗施行에 必要한

其他事項은 細則으로 定한다.

附 則

第1條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第1回 臨
時總會 當日 正會員으로서 國家 또는公
共團體에서 5年이상 速記實務에 從事한
者는 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1級 資格證
을 수여한다.

第2條 本規定은 1969年 6月 4日부터 施
行한다.

別 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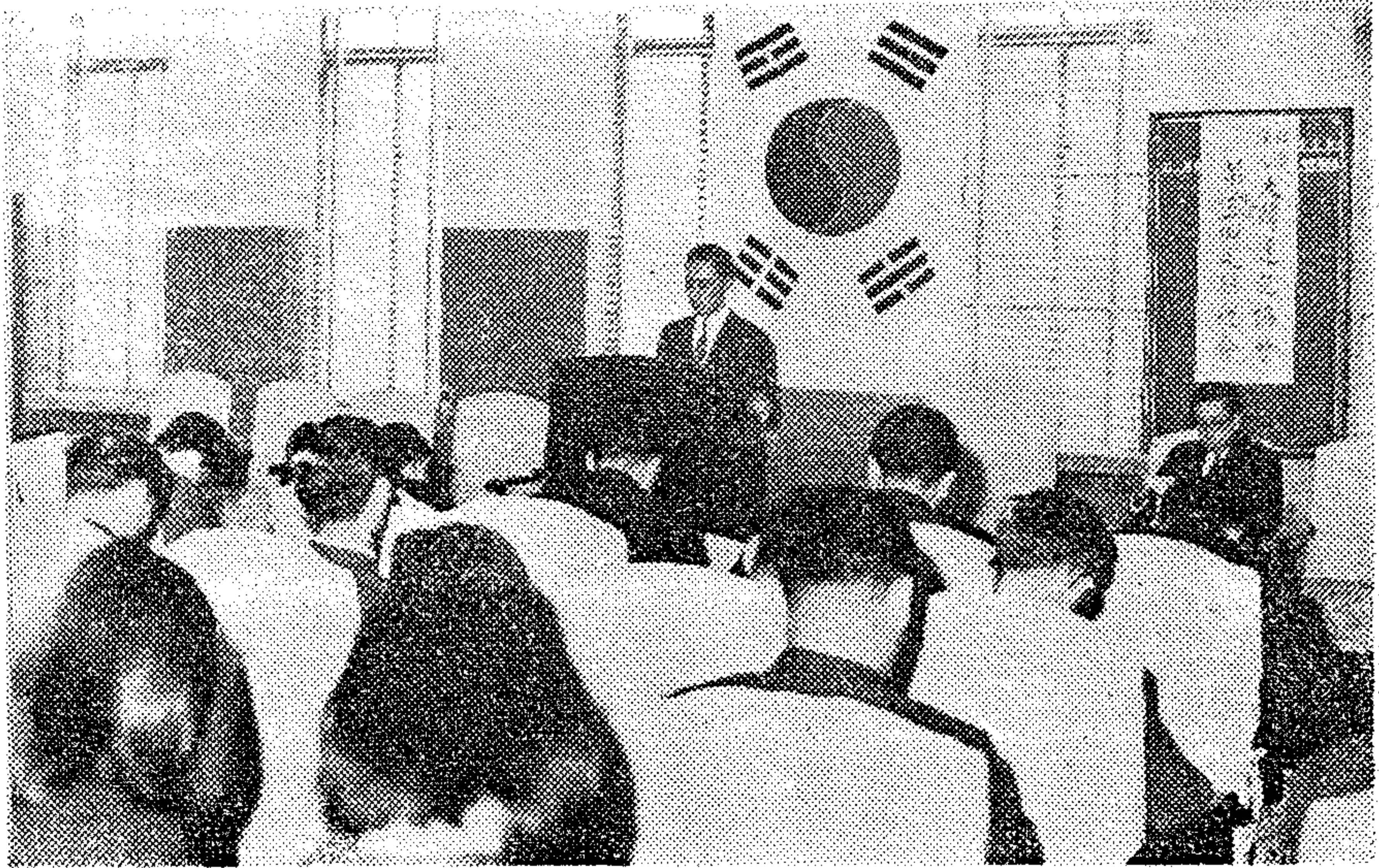
國 語 速 記				英 語 速 記			
급수	속도(1분)	번문시간	정 확 도	급수	속도(1분)	번문시간	정확도
1	320자이상	15분이내	95점이상	1	250단어이상	15분이내	95점이상
2	300 "	"	"	2	200 "	"	"
3	270 "	"	"	3	180 "	"	"
4	240 "	"	"	4	150 "	"	"
5	200 "	"	"	5	120 "	"	"
6	180 "	"	"	6	100 "	"	"
7	150 "	"	"	7	80 "	"	"
8	120 "	"	90점이상	8	60 "	"	90점이상

優秀한 速記士는 눈치가 빠르고 行動이 敏捷하고 言語와 理論을 잘 理解하고 發言內
容을 어그러뜨림이 없이 翻文하고 또 調整하는데 있어 自由로이 用語를 驅使하고 高速
度의 速記를 할수 있는 職業的 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速記士는 速記力만이 重視되지 않으며 翻文에 있어서 批判的 判斷을 加할
수 있는 能力者라야 한다. (速記概觀에서)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第3回 定期總會



日時 1970. 12. 30

場所 國會特別委員會會議室

附議案件

第1號議案 1970年度 決算承認 및 監查報告의 件

第2號議案 1971年度 事業計劃書 및 豫算案承認의 件

第3號議案 定款改正의 件

第4號議案 任員選出의 件

會務報告

會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1969. 12. 30 제2회定期總會에서 여러분께서 重責을 맡겨주신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任期가 滿了되어 그간 저희들 受任事項의 모두를 報告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들은 總會의 諸般 受任事項을 完遂하기 위하여 7次의 理事會와 10次의 部長會議을 갖고 理事陣全員이 各實相符한 協會로서의 基礎를 마련하기에 努力하여 왔습니다. 마는 그중에 會員 여러분의 期待에 副應하지 못한 點도 없지 않다는 점을 悚懼스럽게 느낀채로써 아래와 같이 1970년도 會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缺員理事의 補選 및 執行部署決定

總會의 受任事項으로 欠員된 理事4名을 補選하였습니다. 理事 楊澈在 申世華 金永春, 黃寅河 新任 4名의 理事를 補選하고 第9次理事會를 1970. 1. 5에 開催하여 執行部署를 改編하였습니다.

總務部長	楊 澈 在	總務理事	黃 寅 河
宣傳 "	梁 源 龍	宣傳 "	金 永 春
事業 "	申 世 華	事業 "	宋 博 文
資格審查委員長	韓 鍾 烈	研究委員長	李 康 賢
無任所理事	韓 奉 永	韓 東 春	

둘째. 國庫補助金 受領

前任員陣이 努力하여 획득한 國庫補助金 108萬圓中 文化公報部の 自體調整으로 11萬圓이 삭감된 97萬圓을 分期別로 受領하였습니다.

1/4	70.3.18	24萬圓
2/4	70.6.15	25萬8千圓
3/4	70.8.11	25萬圓
4/4	70.12.12	22萬2千圓

셋째. 速記講習會의 開催

1. 放學을 利用한 講習會

放學期間을 通해서 一般人的 速記에 대한 認識을 높이고 그 普及을 目的으로 本 速記協會主管 朝鮮日報社後援으로 實施하였습니다.

期	日	時	場	所	法	式	人	員
冬季	70.1.14	~2.3	建 國 大 學 校	逸 波 式			745명	
夏季	70.8.3	~8.21	東 邦 速 記 學 院	東 邦 式			408명	
"	70.8.3	~8.21	時 事 英 語 學 院	Gregg式			117명	

2. 各級學校 巡廻講習會

이 강습회는 當初 5 個校 實施計劃이었으나 대상학교의 事情으로 3 個校만을 實施하였습니다.

祥明女子高等學校

1回 70.4.12~70.7.24. 120名

2回 70.9.1~70.10.23. 120名

敝新高等學校

70.6.21~70.11.3. 70名

3. 言論機關從事者에 대한 講習會

國會出入 中央記者들에 대한 講習會를 70.11.3~70.12.2까지 朝·夕으로 區分하여 各者의 希望時間에 受講토록 하였고 東亞日報社의 修習記者들에 대한 講習會를 70.12.14~71.2.13까지의 計劃으로 現在 實施中에 있습니다.

네째. 第1回全國速記競技大會의 開催

70.5.17 朝鮮日報社 後援으로 正級 準級 34名이 參加하여 各自의 技倆을 겨누었는바 入賞者는 다음과 같습니다.

正級 1等 高 太 仲 2等 金 基 英 3等 高 勳 燮

準級 1等 최 조 정 2等 최 원 일 3等 宋 惠 鄉

다섯째. 第1回速記士資格檢定試驗開催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70.5.17 朝鮮日報社 後援으로 中東高等學校에서 開催하였으며 特히 英語速記도 同時에 實施하였는바 이는 속기사들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國文 응시자 54名中 24名 合格

英文 " 32 " 12 " "

合格者는 本人의 申請으로 資格證을 發給中에 있으며 現職 國會速記士에 대한 資格證도 定款의 規定에 의한 資格證을 發給할것입니다.

여섯째. 速記展示會의 開催

本速記協會의 最大의 所望事項이라고 할 수 있었던 速記展示會를 6個月餘의 準備 끝에 協會主催 文公部 朝鮮日報社 後援 光復25周年記念事業으로 開催하여 多大한 成果를 거두었고 盛況裡에 終了하였읍니다.

特히 院內展示會 時는 李孝祥 議長님과 崔致煥 會長께서 開館Tape를 끊어 주셨으며 本 展示會를 통해서 院內에서는 國會議員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質問과 아울러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院外展示를 통해서는 學生 一般人에게 速記術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힘이 되었을것으로 사료되며 그 현황은

1. 院內展示 70.9.7~70.9.10 參觀人員 1,200名
2. 院外展示 70.10.1~70.10.3 參觀人員 9,900名 (國立공보관)

일곱째. 會誌發刊

會員여러분에게 이미 配付해드린바 있는 會誌는 그 名稱을 「速記界」로 定하고 會員 各者의 意見과 先輩여러분의 高見을 실어 우리 速記界의 움직임을 알수 있도록 冊子부피는 적으나 알찬 內容으로 發刊하여 이미 4號를 내서 本會誌發刊에 대한 今年度 計劃을 完了하였습니다.

여덟째. 速記學術研究문제

本協會內에 研究委員會를 再編하여 꾸준히 速記學術에 대한 研究를 하고있으나 手筆速記의 改良과 機械速記化의 研究課題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까닭에 每年 繼續事業으로 推進하여야 그 成果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아홉째. 支部設置문제

本協會의 支部를 서울을 除外한 各地方에 設置하려는 努力은 그간 數次에 걸쳐 該當地方과 連絡을 取해왔으나 各地方의 支部結成 態勢가 갖추워지지 않아서 아직 未結成狀態에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열째. 國會速記職 公務員手當引上

그동안 國會現職 會員 여러분의 大望이던 速記職公務員 手當引上문제는 會長님以下 여러분들이 적극 협력하시고 手苦해주신 結果 月8,000원으로 3,000원이 引上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速記協會의 보이지않는 힘의 結實이 었음을 會員 여러분이 認識하여주시므로서 滿足하겠읍니다.

열한번째. 國庫補助金獲得

71년도의 국고보조는 70년도와 同額인 108萬원이 豫算에 計上되었으나 豫決委 審議과정에서 民間補助金 10%減額으로 972,000원으로 確定되었습니다.

끝으로 當初 計劃外에 12月 28日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速記普及과 速記界全般에關한 세미나를 가진바 있으며 또한 速記分野에 대한 各國의 現況資料를 入手하여 번역에 착수한바 있습니다. 이 資料는 明年度計劃事業인 速記學術專門誌發刊에 도움을 주리라 믿읍니다.

以上으로서 不充分합니다마는 當協會가 1年間 걸어온 會務의 報告를 드리며 이제 모든것을 後任者에게 넘기고 退任하는 立場에서 여러분에게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本人등 理事여러분이 在任中 會員여러분께서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시고 指導鞭撻해 주셔서 協會가 이만큼 成長할수 있었음을 재삼 감사드리며 이제 希望의 새해를 맞는 71년에는 좀더 有能하고 協會를 위해 힘쓰실 새 理事長과 理事들을 選出하시여 本協會를 完全 軌도에 올려놓을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會員여러분 더욱 福 많이 받으시고 所願成就하시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1970년 12월 30일

理事長 李 東 一

第1號議案

1970年度決算承認 및 監査報告의 件

1970年度決算書 (1970.1.6~12.30)

세 입			세 출		
관	항	예 산 액	관	항	예 산 액
기	본 수 입	126,000	회	의 비	135,000
	입회비	6,000	경	상 비	270,000
	월회비	120,000	수	용 비	96,000
사	업 수 입	900,440	사	업 비	2,410,640
	광고비	200,000		무료강습	903,000
	수수료	670,440		경기대회	137,500
	수협료	30,000		전시회	558,000
찬	조 금	1,000,000		회지발간	494,140
잡	수 입	1,876		학술연구	200,000
보	조 금	1,000,000		좌담회	43,000
이	월 금	131,324		검정시험	75,000
				자르번역	137,000
				세미나	52,000
			판	공 비	120,000
			예	비 비	128,000
			잔	고	80,766
계		3,159,640	계		2,132,001

감 사 보 고 서

협회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70, 12, 30 현재 본 협회의 재정현황을 감사한 결과 결산서와 상위 없음을 보고합니다. 1970. 12. 30

監事 金 仁 寧 事 高 在 欽

F Y 7 1 事 業 計 劃 書

사 업 명	예 산 액
속 기 경 기 대 회	193,000
무 료 속 기 강 습	557,200
방 학 이 용	372,000
법원검찰서기	49,000
연 론 인	76,000
학 교 순 회	60,200
속 기 학 술 연 구	114,000
속 기 학 술 지 발 간	360,000
회 지 발 간	420,000
자 격 검 정 시 험	161,000
체 육 대 회	107,000
계	1,912,200

F Y 7 1 歲 入 歲 出 豫 算 書

세 입			세 출		
관 항	예 산 액	산출근거	관 항	예 산 액	산출근거
기 본 수 입	130,000		회 의 비	136,000	
월회비	120,000	100원×100명 ×12월	정기총회	40,000	
입회비	10,000		회 의 비	96,000	
사 업 수 입	940,000			경 상 비	168,000
광고비	100,000		사 무 비	168,000	
회지대	40,000		수 용 비	60,000	
수수료	720,000	60,000×12	사 업 비	1,912,200	
자격검정수수료	50,000		경기대회	193,000	
경기대회수수료	30,000		무료강습	557,200	
찬 조 금	540,000		속기학술연구	114,000	
잡 수 입	3,434	은행이자	학술지발간	360,000	
보 조 금	972,000		회지발간	420,000	
이 톨 금	80,766		자격검정시험	161,000	
			체육대회	107,000	
			판 공 비	150,000	
			예 비 비	240,000	
계	2,666,200		계	2,666,200	

第3號議案**定款改正의 件**

1970년 12월 28일 제15차 이사회를 거친 定款改正案이 다음과 같이 議決되었다.

定款改正(案)

1. 原 案

定款第2條 (소재지) 「本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改 正

(총회의 승인을 얻어)를 削除

2. 原 案

第25條 (부서) 이사회에 다음의 부서를 두고 “부” “회”에 부장 위원장 1인을 둔다.

1. 총무부 2. 선전부 3. 사업부 4. 연구위원회 5. 자격심사위원회

改 正

“총무부”다음에 “재정부” “사업부”다음에 “외국어부”를 삽입.

第4號議案**任員選出의 件**

定款第12條에 依히 任期滿了된 任員을 다음과 같이 새로 選出하였다.

名譽會長	李 孝 祥	(國會議長)
會 長	崔 致 煥	(國會議員)
顧 門	權 景 植	(國會事務總長署理)
“ ”	李 鎬 賑	(國會事務次長)
“ ”	任 哲 淳	(國會專門委員)
“ ”	河 在 鳩	(國會議事局長)
“ ”	權 孝 燮	(國會委員局長)
“ ”	吉 基 祥	(國會總務局長)
“ ”	劉 龍 珪	(國會速記課長)
指導委員	姜 駿 遠	宣傳部長 梁 源 龍
“ ”	金 星 漢	事業部長 申 世 華
“ ”	張 基 泰	事業理事 高 用 培
“ ”	李 東 根	外國語部長 盧 英 民
理事長	安 仁 榮	研究委員長 李 康 賢
總務部長	柳 智 永	資格審查 李 龍 洙
總務理事	蔡 康 熙	委員長 崔 錫 模
財政部長	金 仁 寧	理事 崔 錫 模
財政理事	崔 秉 秀	監 事 金 永 善
		“ ” 林 來 炫

會 務 日 誌

70. 12. 30 第3回 定期總會. 新任理事長에 安仁榮氏 選出
會誌 第4號 發刊
71. 1. 4 第16次理事會. 執行部署構成
71. 1. 12~2. 2 第8回 冬季速記無料講習實施
受講人員 國語速記 827名
英語速記 252名) 1080名
- 第17次 理事會.
前理事長 및 展示會製作會員에게 感謝牌 및 感謝狀수여 決議
「速記界誌」編輯委員 選出
委員長 梁源龍 委員 柳智永
委員 金仁寧 " 申世華
" 盧英民 " 李康賢
" 李龍洙 " 金善弼
" 金鍾壽
71. 1. 19 光復 25周年記念 速記展示會作品原稿 復寫
71. 1. 30 70年度 4/4分期 事業實績報告書 및 精算書 提出(文化公報部)
71. 2. 9 前理事長 鄭源道氏(3代) 李東一氏(4代)에 感謝牌수여
速記展示會作品製作委員 金鍾壽 蔡康熙 朴炅植 金敬萬 金善弼諸氏
에게 感謝狀 및 副賞수여
71. 2. 16 70年度 法人定期報告書提出(大速協143號) (文化公報部)
F Y 71事業計劃 및 豫算書 提出(大速協144號)(文化公報部)
71. 2. 28 F Y 71國庫補助事業計劃承認 및 補助金交付決定通知書接受
1. 3. 23 1/4分期國庫補助金 240,000원 受領 <總務部>

速 記 料 金 案 內

本協會에서는 速記料의 現實化를 위하여 지난 1967年 12月 1日 施行해오던 速記料金을 改正 引上 다음과 같이 施行하기로 決定하였습니다.

속 기 요 금 표

구 분	단 위	속 기 료	비 고
회의 및 강연	1 시 간	8,000 원	
좌 답 회	1 시 간	9,000 원	대 담 포 함
재판 및 방송	1 시 간	10,000 원	
녹 음 재 생	1 시 간	8,000 원	
구 술	1 시 간	6,000 원	저술, 비서속기 등
외 국 어	1 시 간	15,000 원	영 어, 일 어

- 단, 1. 요지작성료 : 「속기료」외에 매 시간당 4,000원씩
가산함
2. 속번역료 : 「속기료」외에 매 시간당 3,000원씩
가산함

위와 같이 결정 시행함

1970년 3월 1일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編輯後記

- 萬物이 生動하는 3月. 머지않아 꽃世界를 이룰 봄을 시기하듯 꽃샘바람이 체법 차다. 自然의 循環法則에 따라 겨울내 움추렸던 大地에 파란색이 움트고 앙상한 枯木에도 生命의 움이 틀때 기지개를 켜 「速記界」도 驅步로서 새 봄을 맞이할 것이다.
- 지난 70年은 씨를 뿌리는 해였다. 그러나 심는 精誠도 所重하지만 이를 가꾸어가는 精誠 또한 所重하다. 創刊을 본지 1年 이제 5號가 나왔다. 펴 대견스러운것 같으면서도 흠 잡을 곳이 한두가지가 아닌것 같다. 여러분의 隔意없는 叱責으로 차츰 補完해져야겠다.
한가지 添言해야할 것은 적은 豫算과 許多한 惡條件속에서도 本誌의 創刊作業을 도와준 前 理事長 李東一氏에게 編輯人 一同은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수 없다.(源)
- 이번號에는 70年度 定期總會의 議決事項과 速記界 現實問題를 다룬 <세미나>發表文의 拔萃錄을 실었다. 速記界의 어제와 내일을 連結하는 오늘을 理解하는데 一考가 되리라 믿는다.
- 希望찬 새해 새봄을 맞아 會員여러분의 幸運을 빈다 (良)

季刊 速記界

<第5號>

1971年 3月 31日 發行

發行人 崔 致 煥

編輯人 梁 源 龍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75) 6987 · 6940